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謹  
賀  
新  
年

# 한인뉴스

2016

1

VOL. 235

haninnewsi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http://www.innekorean.or.id)



FROM  
WORK OUT



TO  
CHILL OUT

### Time to change

Introducing a smartwatch that lets you take control with a simple turn.

SAMSUNG  
**Gear S2**



##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너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0	0700 <sup>h</sup>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35	2040	매일	77W
자카르타 서울	KE626	0820	1725	월,목,일	300-200
서울 자카르타	KE625	1850	0010 <sup>h</sup>	수,토,일	300-200

\* 대한항공 발리-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OTTE SHOPPING AVENUE**  
New Shopping Paradigm

# *New Year*

## **SPECIAL**

Jan 2016



# LOVELY CHRISTMAS ON ICE

롯데 쇼핑비뉴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체험해 보세요

27 NOV 2015 - 10 JAN 2016

WEEKDAYS | IDR 50.000

WEEKEND\* | IDR 75.000

\* 공휴일과 방학기간에는 (14 Dec - 3 Jan)  
주말 입장료가 적용 됩니다



사은행사

1 - 10 JANUARY



GET 5%  
CASHBACK

\* Min. Purchase IDR 2,5,7 Mio



특별한 선물  
CALENDER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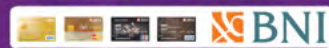
GET ADDITIONAL  
LOTTE GIFT VOUCHER

IDR 50,000\* +



아이스 스케이트  
무료 입장권

BNI카드 소유자에게는  
특별할인이 적용됩니다



\* 주말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층 서비스 라운지에 확인해 주세요

스페셜 이벤트

UP TO  
70%

• MAP 골프 대축제  
12 Jan - 7 Feb | GF - EVENT ATRIUM

BRAND : TAYLOR MADE, ADIDAS, NIKE, MIZUNO,  
CROCS, OAKLEY, CALVIN KLEIN, ECCO,  
CALLAWAY, WILSON, ASHWORTH, PUMA,  
SRIXON, XXIO, CLEVELAND & HONMA

• MANGO 특별 행사  
Start 22 Jan | GF - POP UP STORE  
OPENING NEW POP UP STORE

• DAP 침구, 수예 특별 행사  
11 Jan - 7 Feb | 3F - FUN ATRIUM

BRAND : FLORENCE, SERTA, KING KOIL, TEMPUR

• MAP SHOES BAZAAR  
28 DEC - 17 JAN | GF

BRAND : ECCO, ROCKPORT, TOMS, NINE WEST,  
STEVE MADDEN, PRETTY FIT, BEETLE BU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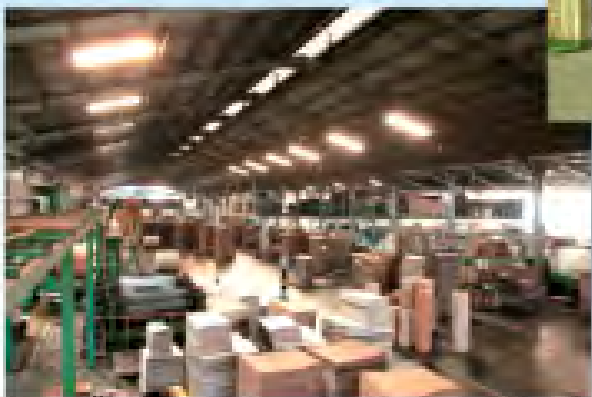
\*T&C Apply



**PT. BOSUNG INDONESIA**

ISO 9001 : 2000 / ISO 14001 : 2004

Corrugated Sheet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Inner Box



포장재 전문 제조회사 보성 인도네시아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품 안내**

-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락스
- 종이 쇼핑백

골판지 생산에서 카톤박스, 인쇄, 재단, 코팅까지  
포장재 생산 전공정 삼기를 통한 제품생산으로  
최고 품질과 신속 납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Jl. Raya Rajeg, Desa Sindangseri, Kecamatan Pasar Kemis Tangerang 15660 Banten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mailto:shopping@bosung.co.id) [sales@bosung.co.id](mailto: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Hunting)  
Fax. : (021) 5935 0022 (Shopping Bag) - (021) 5935 0066 (Inner Box) - (021) 5935 0033 (Carton Box)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T. TAEWON INDONESIA**

ISO 9001: 2000 / ISO 14001 : 2004

-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OFFSET PRINTING
- PULP MOLD



Jl. Raya Industri Selatan 1, Blok LL-8 Kers. Industri Jababeka II Cikarang Bekasi 17550  
E-mail : [sales@taewon.co.id](mailto:sales@taewon.co.id) Tel. : (021) 8945 - 1234 Fax No : (021) 8994 - 1153/1154

## 신년연하장



그림 : 이은수(재인도네시아 미협회원)

나는 듯 숨은 소리 못 듣는다 없을썬가  
돌우려 터지려고 곳곳마다 움직이리  
나비아 하마 알경만 날기 어이 더딘고

정인보 <이른 봄> 중 2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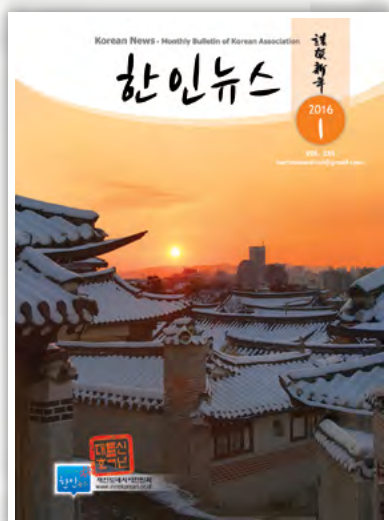
#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대한민국 서울 북촌의 해돋이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adoodle]

신년 연하장<그림: 이은수>.....7

차례.....8

조태영대사 신년사.....10

양영연한인회장 신년사.....12

승은호명예회장 신년사.....14

양영연 신임회장과 인터뷰.....16

2016 병신년 신년인사.....18

모든 생명체가 자연의 리듬에 기대어 삽니다.

몸도 리듬이 깨지면 아프듯이  
생명은 리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때에 맞춰 나고 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에서 배우고  
다가올 것에 희망을 품습니다.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가벼운 배낭으로 상쾌한 출발을 하시는  
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집장 홍석영



논설위원 칼럼/ 국비유학생 <김문환>..... 24	박정자시인의 사진읽기.....49
이선진 전대사의 일기/한국기업은 우리와 고통을 같이 하였다.....26	2015년 12월 경제 브리핑.....50
이모저모 한인사회.....30	지상갤러리/ 마티스, 앵무새와 인어 <김선옥>.....54
한인회 하반기 정기이사회 한-인니 경제인 우호 협력의 밤 대사관 신년 인사회 제 96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 및 회장 이,취임식 Cikini 한-인니 우정의 벽화거리 제 2회 한국대사배 바둑대회 하리다르소노와 함께 한 굿바이 2015 화이트 콘서트 재외국민 보호를위한 대책회의 개최 KOICA, 자바북부해안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인니여성 동창생캠페인 및 동창회 개최 해외취업지원 협의체 발족 명사초청MOU 완구협회 송년회 늘푸른교회, JIKS에 장학금기탁 인니 전국 아동폭력대응 세미나	집중! 이 사람/ Wan Andi Aryadi(BNI).....56 신성철칼럼/ ‘아세안 공동체’ 순항할까?.....59 행복에세이<서미숙> .....62 법률해설 / 인도네시아민법<이승민>.....46 따만미니 전통가옥관 탐방문 <최조은>.....68 Jalan-jalan Jakarta/도자기 센타에서<사공경>.....70 드라마로 배우는 BAHASA <허영순>.....74 한인뉴스와 함께 한 14년<조규철>.....77 생활정보 .....83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양영연 / 편집인 : 강희중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최인실,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신년사



## '열린 대사관' 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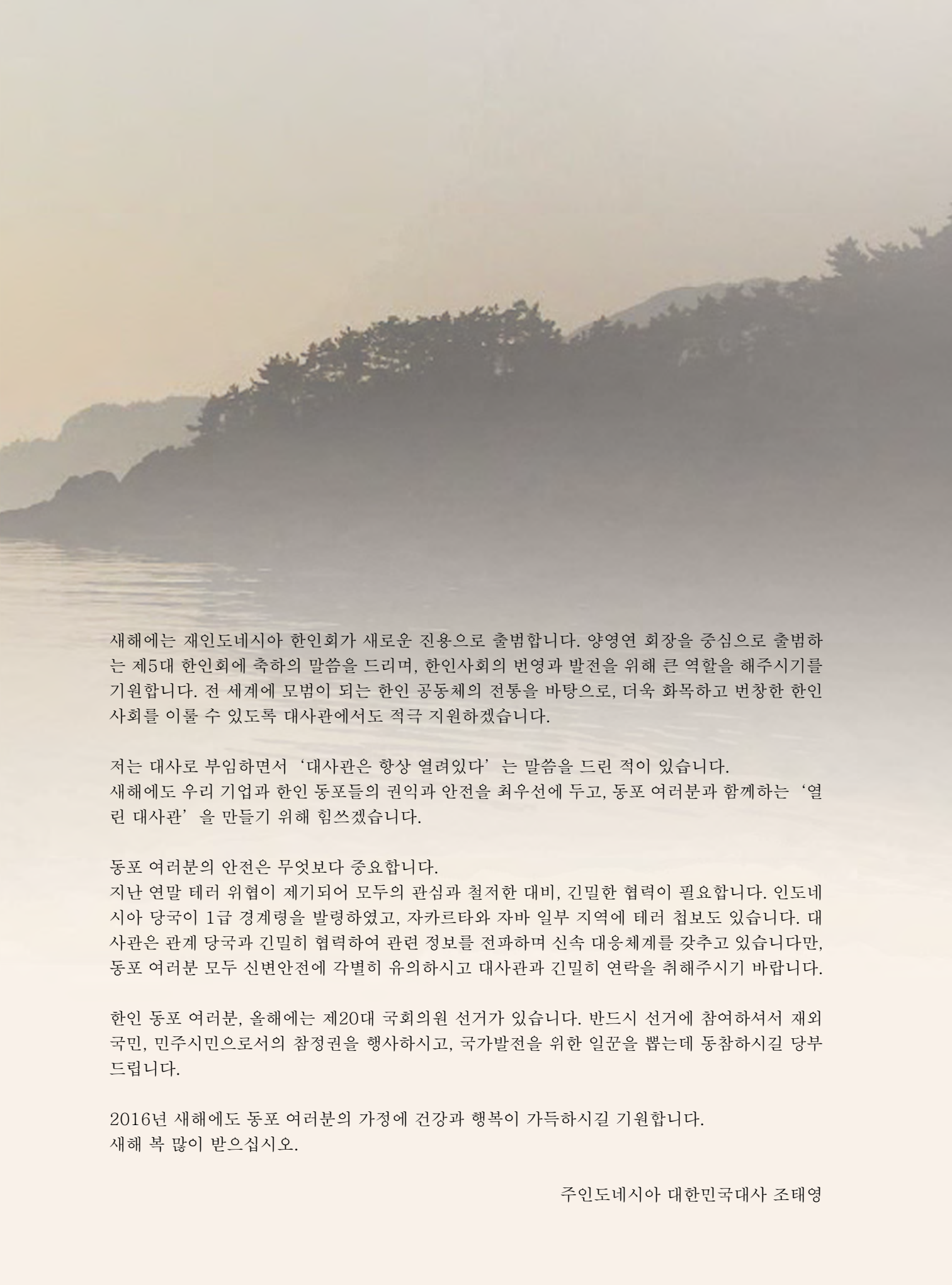
올해 한 해 다들 건강하시고, 동포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큰 기쁨과 행운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인도네시아 경제도 어려웠고, 우리 기업들과 동포 여러분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새해에는 경제가 나아져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되길 소망하면서, 이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사관으로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지난 한 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펼치며 관계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G20 정상회의와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의 일원으로서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도 강화되었습니다. 새해에는 그간의 협력이 더한층 발전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양국 관계의 신뢰와 우정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2015년은 우리 한인 동포들의 위상과 역량을 국내외에서 드높인 한 해입니다.

자카르타 한복관에서 양국 국민들이 함께 독립 70주년을 축하하는 광복절 경축행사가 있었고, 고국의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우리 선수단이 3위라는 쾌거를 달성하며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역량을 과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청년고용과 희망 메시지를 담은 세계한상대회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기운이 계속 뻗어 나가 동포사회의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새로운 진용으로 출범합니다. 양영연 회장을 중심으로 출범하는 제5대 한인회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한인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한인 공동체의 전통을 바탕으로, 더욱 화목하고 번창한 한인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대사로 부임하면서 ‘대사관은 항상 열려있다’ 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기업과 한인 동포들의 권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는 ‘열린 대사관’ 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연말 테러 위협이 제기되어 모두의 관심과 철저한 대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1급 경계령을 발령하였고, 자카르타와 자바 일부 지역에 테러 첩보도 있습니다. 대사관은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정보를 전파하며 신속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동포 여러분 모두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대사관과 긴밀히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동포 여러분, 올해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셔서 재외 국민,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정권을 행사하시고, 국가발전을 위한 일꾼을 뽑는데 동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 조태영



## 한마음, 한 뜻으로 동반 성장하는 한인회

존경하는 한인 동포 여러분!

겨울이 봄에 자리를 내어주듯이, 묵은해가 새해의 기운에 작별을 고하듯이  
오늘 새로운 2016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한인 동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감동이 함께하시며, 또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극복하는 한 해가 됩시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루피아 환율 불안정과 매년 가파르게 상승되는 근로자 임금으로 인한 대외 경쟁력상실에 대한 우려를 갖게하는 등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이 녹녹치 않을것 같아 한인 사회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서 현명한 지혜와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6년은 제5대 한인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기입니다. 제5대 한인회는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한 몇가지 역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인 단체들의 한마음, 한 뜻으로 동반 성장

이제는 우리 한인회가 현재의 활동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저는 임기 동안 “한인회가 한인 단체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한인 사회가 성장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한인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제 각각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한인단체가 한인 사회의 더 나은 삶과 발전을 도모하고 봉사하기 위해 모였기에 모든 한인 단체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연합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가 다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 합니다.

#### **한인 회관 건립 추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번 제가 회장 입후보시 납부한 한인회 발전기금 5만 달러를 한인회관 건립기금의 종자돈으로 하여 제 임기 동안만이 아니라 차기 차 차기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만나고 이야기할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한인회관은 한인회 사무국만 아니라 한글학교, 경로당, 한인 문화단체, 체육 단체 등이 입주하여 동포사회의 구심점이 될 것이기에 절실한 문제입니다.

#### **한인사회 분쟁 조정 활성화**

우리 동포의 어려운 일이나 동포간 의견다툼에 한인회가 중심에 있어 상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활성화 하고 싶습니다. 이 일들은 틀림없이 비용이 동반 될 것입니다. 이 비용의 조달방법 역시 한인회비의 적극적인 징수 등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연구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인회는 비영리 단체인 만큼 한인회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아갈 것이며, 한인회의 모든 활동이 한인 사회와 좀 더 활발하고 원활하게 소통되기 위해서 한인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더 투명한 단체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인회 활동이 한인 사회의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도록 제5대 한인회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5대 한인회는 교민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양영연

# 신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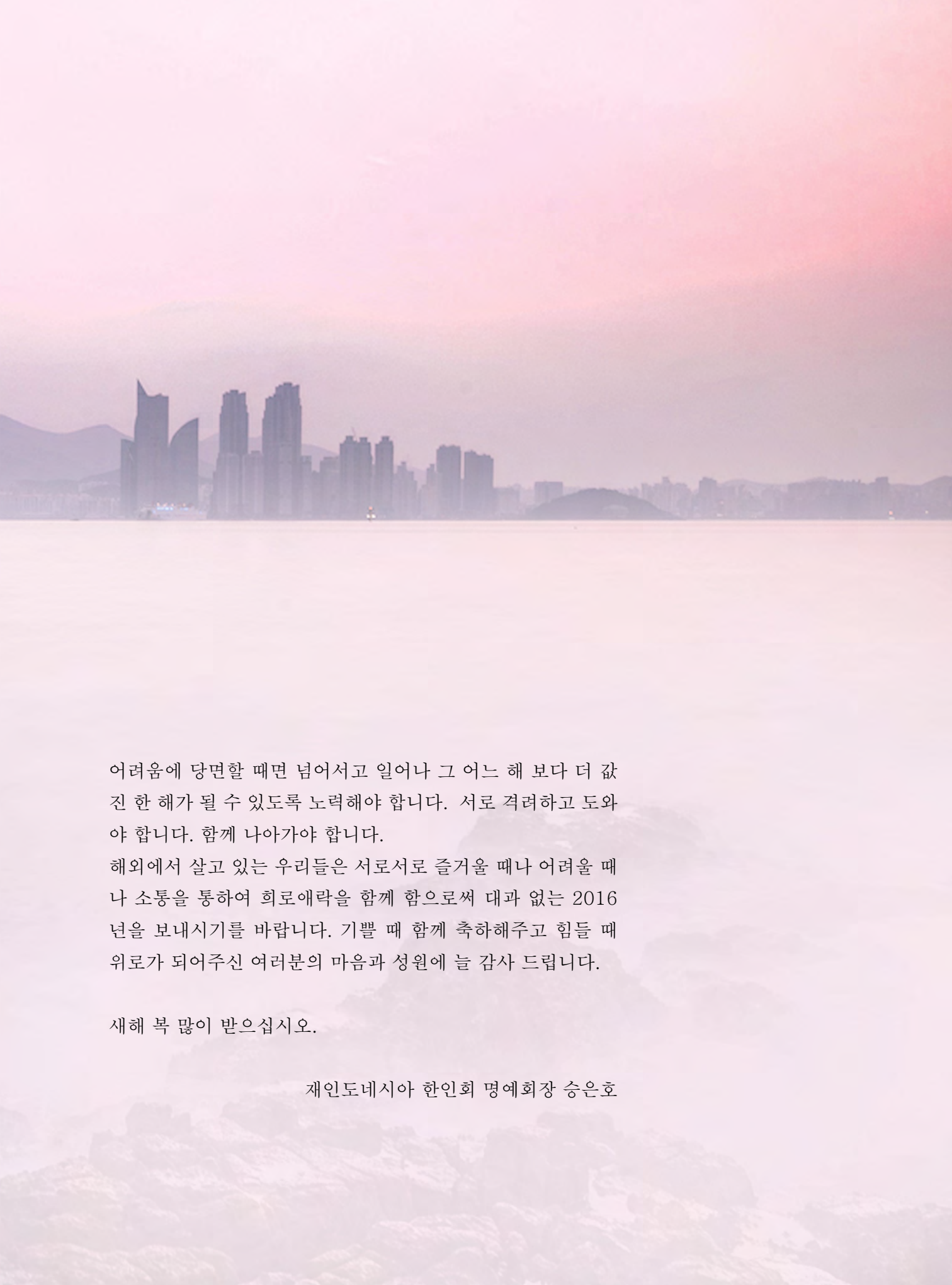


## 서로 격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친애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2016년 丙申年을 맞이 하면서 2015년의 어려웠던 일들은 말끔히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설계 밑에 활기차고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6년에도 녹록한 한해는 아닐 것 입니다.

2015년 보다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나 기업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열어보지도 않은 2016년을 우리는 두려워 해서 안됩니다.



어려움에 당면할 때면 넘어서고 일어나 그 어느 해 보다 더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서로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소통을 통하여 희로애락을 함께 함으로써 대과 없는 2016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 함께 축하해주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신 여러분의 마음과 성원에 늘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명예회장 승은호



**제5대 양명연 한인회장과의 인터뷰**

2016년 1월부터 3년 간의 임기로 제5대 한인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Q 소감이 어떠하신지요.**

한인회 역사가 40년을 넘게 지속하면서 선배 회장님들이 이루어 놓은 공든 탑을 잘 이어 받아 돌 한 조각을 올려 놓는다는 심정으로 한인사회를 위하여 봉사 할 것 이며 한인회 자체 내분이 한번도 없었던 인도네시아 한인회 전통을 이어서 화합으로 한인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Q 인도네시아에는 어떤 계기로 정착하게 되셨는지요.**

인도네시아에서 정착하기 전에 개인적인 업무로 여러 차례 방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방문 시 인도네시아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눈을 보면 정말 순박함을 느낄 수 있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니 자연스럽게 친근감이 가는 강한 인상과 유능한 손재주 그리고 온순한 성격 소유, 인니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 및 정치 안정화 등 여러 조건이 인도네시아에 사업 투자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 주었고 특히 1987년부터 인도네시아 2차 한국인 인도네시아 투자 붐이 일어나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Q 한인사회의 규모도 이미 커진 상태라 한인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한인회에 관심과 기대가 큼니다. 회장님께서서는 단합된 한인사회를 위해 지역한인회와의 연합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인회를 향한 목표와 비전이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2,300여개 한인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 기업이 고용한 인도네시아 현지인만 해도 약 100만명이 넘고 그리고 약 6만명의 한인 교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주류 사회에 공헌하고 양국 동반 성장을 우선시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입니다.

**Q 가장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하실 일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연합한인회의 구성입니다. 각 지역 한인회와 각 단체를 아우르는 연합한인회를 결성하는 일입니다. 이 또한 인도네시아의 지역적 특성상 쉽지 아니하고 각 단체의 이해관계가 있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또한 본인의 재임기내에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해외 각국 한인회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도네시아 지역 한인회와 각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Q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역점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제 5대 한인회에서 추진할 한인 사회 발전 역점 사업으로는

1. 한인회관 건립
2. 한인사회 분쟁 조정 활성화
3. 연합한인회구성 등 3가지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한인회관은 한인회 사무국만이 아니라 한글학교, 경로당, 한인 문화단체, 체육단체 등이 들어서 동포사회의 구심점이 될 것이기에 건립이 절실하며 이번 5대 한인회에서 못하더라도 차기 회장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기금을 차곡차곡 모아갈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한인끼리의 분쟁은 전체 한인에 대한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한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 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한인회비 징수를 통해 마련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13개 한인회의 통합 기구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자카르타와 인근 3만명의 한인을 대표하는 현 한인회가 외부적으로는 전체 한인회 대표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지방의 작은 한인회까지 아우르는 단체가 없어 이들 단체는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단체가 뭉쳐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인들의 위상도 강화되고 그 힘을 발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회장님이 여가 시간에는 뭘 하시는지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틈틈이 골프를 하고 최근에는 근력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가능하면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평소 마음에 새기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사람사이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한번 맺은 인연을 실패로 지켜 나가기 위해 의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 2016 병신년 신년 인사

존경하는 한인 기업인 여러분!

2016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전과 창조, 개혁을 상징하는 병신(丙申)의 해를 맞이하여 한인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활기차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시는 2016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는 루피아화 의무사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사용,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 도입 및 철폐, 비자 발급 축소 등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특히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한인 기업인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공회의소는 정부 및 다양한 분야의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대사관 및 코트라와 공동으로 각종 간담회 및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경제 정책을 우리 기업인들과 공유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공회의소는 한인 기업가들이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부 및 경제단체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함으로써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한인 기업인 뿐 아니라 한인 동포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 및 경제단체와의 협업하여 한인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코참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Go Global, Kocham Together!

재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 송 창 근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지난 3년 한인회장직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꾸어 간다면 세계에서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는 동포사회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아직 어렵고 2016년에도 그리 전망이 밝지 않지만 우리 동포 기업인 여러분께서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동포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도네시아한인회 제4대 한인회장 신기엽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교민 여러분, 희망찬 병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은 다사다난했던 정치, 경제 및 사회 문제 가운데서도, 단연 의미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인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통일 준비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 이자 ‘통일 대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이며, 다가오는 ‘통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신년 새해에도 인도네시아 경제상황은 상반기까지는 다소 어려운 전망이 예상되지만, 한인동포 여러분들은 그 동안의 저력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다면 낙관적인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교민사회가 진정으로 화합하고 번영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불어 평화통일을 위해서 교민 통합과 통일을 위한 외교관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교민 여러분,

2016년 새해는 아직 ‘열어 보지 않은 선물’ 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희망의 선물, 사랑의 선물이며,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 하루 다가 오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새해가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부터 원숭이는 지혜가 뛰어나고 재앙을 물리쳐 주는 영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기운이 병신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장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여 더욱 행복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민주평통 동남아협의회 회장 전민식

2016

각자 행복을 찾는 한 해로 만듭시다 !


올 한해는 동포 여러분들의 처한 위치에서 각자 행복을 찾으시는 귀한 해 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년시절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 열심으로 부딪혀보기를 권합니다. 시간들을 잘 관리하면서 장차 멋있게 사는 계획을 세워 보며 준비하는 흥분된 시간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행복입니다.

중년에는 헝그리 정신을 간직한 채 맡겨진 중책을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려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떠한 역경에도 초지일관 목표를 향해 나가면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위대함은 중년에 들어서 누려할 할 행복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노년에는 자신과 건강을 잘 돌보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남을 타하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주위를 아끼며 사랑함에 보태야 보기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든 재주와 재능을 갖추게 될 텐데, 재능 기부를 하며 행복을 찾는 것은 어떨까요?

2016년 새해에는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회장 현상범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재인니 교민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불황의 장기화 되어 2016년에는 더욱더 심화할 것이라는 언론매체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렇지만 제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열성과 정성어린 성원이 없었다면 지난해 2015년 강릉에서 있었던 전국체전에서 회계사 미라는 업적을 결코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체육인과 가족 여러분

이러한 저력이 있는 우리 인니 대한체육회는 전인니 주민들과의 화합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발굴 육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새해를 맞아 2016년 붉은 원숭이 의해 의미처럼 밝고 슬기롭고 영악하게 대처하여 최유기네 은근과 끈기의 정신을 발휘하여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며로서 한단계 도약하는 대한체육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재인이 교민여러분 그리고 체육인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초심으로 돌아 갑시다.

끝으로 우리 교민 그리고 체육회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여 “우리는 해내다” 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인니 대한 체육회장 최병우




2016년에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겠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는 잠언 구절(4:23)이 떠오릅니다. 어느 분이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아무 것도 먹을 수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다른 사람의 차트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병이 걸렸을 때 우리 힘으로는 병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마음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중병에 걸려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살면 완쾌되기도 하고 매일 불평과 걱정으로 살면 실제로 중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뭐든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삶의 온갖 문제에서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이제 2015년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2016년을 선물 하셨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면서, 그러면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에 남은 것은 선(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인문예총 회장 사공 경



‘화합’ 하는 한 해가 되길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동포여러분,  
2015년은 참으로 의미 있고 활기가 넘쳤던 해였으며,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 희망으로 201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경험과 저력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하는 2016년도에는 더욱 화합하며, 더욱 열심히 일하여 우리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단결하여 서로 돕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든다면 더욱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한인사회 구성원 및 단체들 모두가 화합하여 한걸음 더욱 도약하는 도전과 감사의 한 해로,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는 소중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새해, 밝은 희망을 꿈꾸는 새해가 되십시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회장 박현순





2015년 한 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 드리고  
원숭이 띠 2016년 새해에도 변함 없이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며 따뜻하고 희망찬 일 그리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재인니봉제협의회(KOGA) 회원사 여러분들은 새해 더 큰 대박 나시고 만사형통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 부정적인 요소였던 외국인 고용 규제와 불법 노조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하고, 인니가 회원국이 아닌 TPP가 전격 타결 되면서 인도네시아 봉제의 상대적 경쟁력 저하가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의 저해 요인들을 새해에도 변함 없이 직접봉제든 간접봉제든 모두 KOGA의 주인으로 함께 단합 하여 봉제인의 저력으로 힘차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인도네시아 봉제협의회 회장 김종림





새해에도 재인니 동포와 함께 뛰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을미년(乙未年)을 뒤로하고 2016년 丙申年 새해가 열렸습니다.  
어김없이 다가오는 새로운 한해는 항상 기대와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지난 한해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 한인사회의 긴장과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많은 한인단체들의 활발하고 발 빠른 활약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특히 저희 재인니 한국 신발협의회에서는 단일 직능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한인기업 모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새해에는 지난 해의 변화무쌍한 상황을 헤쳐나왔던 경험과 단합으로 어려움과 아쉬움을 딛고 힘차게 전진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인니 한국 신발협의회 또한 회원사의 권익과 함께 우리 동포의 권익을 위해 항상 앞장서는 모범적인 새해를 만들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2015년 乙未年 한해를 재인니 동포들과 함께 뛰어 행복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제인도네시아 신발협회 회장 신만기



한인 동포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2016년부터 한인뉴스 편집인을 맡은 강희중 입니다.

한인회장님이 새로이 선임되심에 따라, 한인뉴스를 보다 더

한인들에게 다가가고, 실질적으로 유익한 뉴스지로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알뜰하고, 명망있는 잡지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특히 공인된 단체와 그 단체에 속한 분들의 의견을 더욱 존중할 것입니다.

한인 동포들의 많은 성원과 좋은 내용의 글들을 기고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한인동포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체에 커다란 행운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한인 뉴스 편집인 강희중



지난 일년은 저에게 좋은분들을 새롭게 만나고 그 관계를 지속하면서 소소한 기쁨을 많이 나누었던 한해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제가 힘을내서 한걸음씩 앞으로 내딛었던 힘도 알고보면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 격려였던것 같습니다.

자카르타의 문화 예술 공연 활동들이 한국문화원과 자카르타 문화예술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풍요로웠던 한해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한인사회가 교민들의 작은 기쁨과 슬픔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기원하며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각자품으신 큰 포부들이 하나씩 열매맺어 기쁨이 충만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민사회의 작은 공동체로 자카르타의 예술활동에 작게나마 참여해왔던 자카르타 한인 미술협회도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새해를 품으려 합니다.

교민여러분들도 2016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건강을 우선으로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자카르타 한인미술협회  
회장 신돈철

# 2016

지난해 차세대위원회는 옥타무역스쿨, 아세안무역스쿨, 옥타 워크숍 등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인도네시아 차세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16년에도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세계 시장을 오가는 차세대 경제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2015년 옥타 차세대 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며,

2016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 더 활기차고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월드 옥타 인도네시아 차세대위원회 대표 원영태



## 국비유학생

김문환/논설위원

자카르타-반둥간 고속철 입찰 후유증의 상처가 깊다. 입찰에 실패한 일본측은 틈만 나면 ‘충격적이며 실망스럽다’는 표현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입찰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양국의 제안서를 놓고 저울질하는 과정에 정부실세 중 누가 일본을 밀고, 누가 중국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윤곽도 드러났다. 소위 친일, 친중인사 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다가, 결국 대통령의 최종결정에 의해 중국쪽으로 돌아갔다.

일본자민당 총무회장이며 일.인도네시아 의원친선연맹 회장인 니카이 도시히로 중의원 의원을 단장으로 기업인, 정치인,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1,100명의 사절단이 지난 11월 넷째주 일주일 내내 인도네시아 거리를 활보하였다. 이렇게 대규모 방문단이 자카르타를 찾아나선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그들의 행보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첫날인 11월 23일 오후에는 니카이 단장을 필두로 수십명의 일본 중의원 의원들이 대통령궁에 초대되어 뻑뻑이 집무실을 메운 가운데 조꼬위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이 자리에서 다방면에 걸친 양국협력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지난 고속철 입찰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모호한 태도와 비신사적인 행보에 대한 섭섭함이 표출되었으며, 재발방지 차원의 예방적 주문이 함축되어 있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조꼬위정부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인프라투자의 큰 손인 일본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는 듯, 양국관계증진에 기여한 공로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날 도시히로 단장에게 일등수교훈장을 수여하였다. 인도네시아출신 간호사 파송, 인도네시아 관광객에 대한 입국비자면제 등의 공적사항이 나열되었다. 이어 이들 의원단은 파트너격인 국회(DPR), 지역대의원회(DPD)에 운집하였으며 물리아호텔에서 열린 대규모 심포지엄에도 참석하였다. 그 중 일부 의원들은 인도네시아 영토의 첨단인 아체(Aceh) 지역까지 날아가 지방관리들과 문화, 관광, 경제협력을 논의하였다.

마치 1942년 3월 기습 상륙하여 일주일 만에 자바섬을 점령하였던 제국일본군이 연상되듯 이번 일본 사절단의 방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감행하는 총공세적 성격이 짙었다. 이는 바로 며칠 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담에서 조꼬위 대통령과 마주한 아베 총리가 인도네시아에서의 인프라, 공업, 제조, 해양분야 투자의지를 천명할 때부터 예견되고 있었다.



이날 개최된 만찬행사에는 1961년 대일청구권자금 제1기 국비유학생으로 도쿄농공대학(東京農工大學) 화공과를 나와 친일인사의 상징적 인물로 인식되어온 기난자르 까르따사스미따(Ginandjar Kartasasmita) 전 에너지광업부장관이 조꼬위 대통령을 중심으로 도시히로 단장과 함께 좌우에 정좌하였다.

필자는 수차례 본지의 지면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중국, 일본, 미국등과 인연을 맺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다. 1950년대부터 미국은 보병학교, 참모대학에 인도네시아 위관급장교들을 수용하여 군사교육을 통해 공산화를 저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뒤이어 1960년대에는 버클리대가 유학생을 받아들여 자본주의 경제테크노크라트를 양성하였으며, 1958년 대일청구권 협상이 타결되자 그 자금으로 1961년부터 5년간 385명의 국비유학생을 일본 및 유럽 등지로 내보낸 전력이 있었다. 그 유학생들이 귀국하여 소위 ‘버클리 마피아’가 되거나, ‘기난자르 보이즈’라는 인맥으로 연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미디어상에 ‘Habibie’ s Boys’ 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1978년부터 1998년까지 과학기술부장관 한 직책만을 20년간 역임한 하비비 전 대통령이 장관재임 시 유럽, 미국 등지로 유학 보낸 두뇌들이 최근 속속 귀국하고 있다. 그 스스로 수재소리를 들으며 유럽의 MIT라는 독일 아헨공과대학을 1965년 우등으로 졸업한 이력 탓도 있겠지만,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해외 두뇌를 양성한 점은 선경지명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는 1990년대에 학사과정 1,500명, 석,박사과정 2,500명 등 총 4,000여명의 이공계 국비유학생들을 MIT, Stanford, Princeton, Caltech, Aachen, Delft 로 보냈으나, 졸업 후 이들은 대우가 월등한 Boeing, Airbus, Rolls Royce, GE 등 대기업에 눌러앉아 귀국을 꺼렸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불황으로 인해 이들이 귀국 러시를 이루자, 2013년 하비비 전 대통령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동창회까지 발족되었다. 당국은 이들이 국내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 한국진출기업인 K그룹은 지난 28년간 연인원 652명의 인도네시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2003년부터 시작한 교환학생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32명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대학의 ‘해외유학생유치’라는 기조에 힘입어 한국 쪽으로 향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숫자도 늘고 있다. 2001년 89명이던 유학생은 2013년 916명으로 늘어 7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해 조꼬위 대통령 취임직후 부산방문 당시 연설회가 열렸던 K대학을 비롯하여 B대학이 수적으로 앞서고 있다. K대학은 최대인원이 113명에 달했으며 매년 20~30명씩 입학하고 있다. 이들이 후일 친한성향의 그룹으로 등장하여 ‘지한파 인사’의 산실이 되며 양국 우호증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여 줄 것을 고대해 본다. 그때쯤이면 인도네시아 언론에 ‘K 보이즈’ 또는 ‘부산 마피아’가 회자되도록 말이다.

사진설명;

2005년 6월 일본대사를 통해 ‘옥일훈장’을 수여 받고 있는 아망꾸씨(사진 왼쪽).

아망꾸(Enoch Amangku)씨는 교토제대를 나와 수까르노 집권말기 대통령 교육문화 비서관으로 대일청구권자금 유학생선발 책임자였다. 1961년 그가 제1기생으로 직접 선발하여 체코공대로 보낸 라멜란(Rahardi Ramelan)은 하비비정권에서 과기처장관을 역임하였으며, 일본 유학생인 기난자르는 에너지광업부장관을 지내며 친일인사의 상징적 인물로 각인되어 있다.



## “한국기업은 우리와 고통을 같이 하였다”

필자는 2005.5-2008년 3년간 주 인도네시아 대사로 근무하였다. 유도요노(SBY) 前 대통령이 취임한지 8개월 만에 외교부 외교정책 실장(차관보)를 마치고 부임하였다. 외교관 생활 30년 동안 본부, 해외 근무에서 동남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의욕만 가지고 부임하였다.

부임한지 3개월 되었을 즈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미루다 금년 초 정리를 끝냈다. 국내 출판을 고민하다가 인도네시아 것은 인도네시아로 돌리자는 생각에서 나의 일기 중 교민들께서 관심 있을 만한 사항, 기록으로 남겼으면 하는 사항만 골랐다.

자기 자랑으로 빠질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자기 자랑 부분은 그냥 흘리시고, 주요 사안을 두고 대사가 어떠한 고민을 하였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주시면 좋겠다.

신기엽 회장, 한인회와 한인뉴스 편집진께 깊이 감사 드린다.

2015.12 이선진

### 1. 인도네시아 부임

인도네시아에 2005.5.26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부임하여 6.29.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하 앞 글자를 따서 애칭 SBY)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다.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특명전권대사로 임명 받았다는 인증서를 주재국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식이다. 신임대사는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나라 정부 인사들을 만나거나, 공식 업무 협의를 개시할 수 있다.

당일 대통령 궁에 도착하여 의장대 사열 등 복잡한 의전 절차를 거쳐 SBY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다. 여기 까지는 의전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신임장 제정 후 SBY 대통령과의 짧은 단독 면담이 주어진다. 신임장 제정 식에는 대통령 보좌관 및 정부 고위관리들이 배석하고, 우리 측에서도 대사관의 공사, 정부 참사관, 무관 등이 배석하지만, 단독 면담 자리에는 우리 측 배석자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신임대사로서 맞선을 보이는 자리이다. 국가원수이고, 첫 대면인 만큼 신임대사가 술선수범하여 대화를 이끌어 나갈 장면은

아니다. 의견 관으로부터 단독 면담은 10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미리 주의를 받았다. 대통령의 말만 듣고 간단한 응대외 주절주절 이야기하지 말라는 경고이다.

SBY가 먼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강한 열의를 보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발전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특히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점이 인상에 남았다. 나는 질문에 간단히 답변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9대 무역 상대국이며, 한국의 세 번째로 큰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만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안부 인사 말씀과 SBY의 초청의사를 전하면서, “나는 한국대사이지만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대통령 각하의 말씀은 나에 대한 지시로” 받아 들여,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면담이 끝났다.

노대통령의 안부인사와 한국을 방문하여 달라는 초청의사는 신임대사들이 본부 훈령이 없어도 상투적으로 전하는 말이다. 이례적으로 25분 이상 걸린 긴 면담이었다고 한다. SBY 대통령이 면담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였고 한국 관계를 중시한다는 SBY의 메시지는 분명하였다. SBY와의 단독 면담은 신임대사에게 고무적인 내용이었으며, 나는 면담을 끝내고 나오면서 무엇인가 될 것 같다는 가벼운 흥분을 느꼈다.

SBY에 대한 나의 인상은, 훌륭한 영어 구사력, 논리적인 언변, 상대방을 압도하는 자세,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강한 의욕 등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인도네시아 인종 중에서는 드물게 신장 180cm의 큰 키에 육중한 체격, 육군 장성 출신으로 각료를 몇 차례 역임한 관록, 농촌경제학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소유자에 고급 영어 구사 능력은 상대방을 압도하면서 국가지도자로서의 신뢰감을 자아내게 하였다. SBY는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로서 몇 차례 우리 언론에도 소개되었지만, 초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의 사위이다. 대통령 부인은 아버지를 따라와서 70년 대 중

반 한국(이태원)에서 1년 반 살았다. 그 때 SBY 자신이 약혼자인 현 영부인을 만나기 위하여 한국을 짧게 방문하였다.

대사들이 부임하여 첫 번째 할 일은 그 나라에서 점하고 있는 한국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거나 호감도가 높으면 그만큼 대사가 할 일이 많다는 징후이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대하여 따뜻한 우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카르타 도착한 다음 주 하산 위라유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알게 되었다. 신임대사가 도착하면 먼저 이 나라 외교부(의전실)에 가서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다. 그러면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이 우선되고, 이어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부임하여 첫 번째로 만난 고위급인사가 바로 하산 외교부장관이며, 그로부터 한국 교민에 대한 찬사를 들은 것이다.

“한국기업은 우리와 고통을 같이 하였다”

외교부 장관과의 첫 면담은 매우 중요하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 장관에게 깊은 인상, 즉 이야기 상대가 될 자격이 있다는 깊은 인상을 주지 않으면 다음에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 있어도 만나주지 않는다. 그러한 인상을 주려면 고급영어, 조리 있는 언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외교부 장관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substance)를 준비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대사의 업무 협의 상대는 국장(director)이나, 차관보급(director general)이다. 더욱이 하산 장관은 정통 외교관 출신인 만큼 이러한 관례를 중시하여 대사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하산 장관은 前 메가와티 정부에서 기용된 인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지만, 메가와티 여성 대통령 정부 하에서 야당인사였던 SBY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외교부 장관으로 계속 유임시킨 사람이다. 그는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메가와티 전임 대통령을 수행하여 남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만큼 한국을 잘 알

고 있다. 나는 하산 장관을 국제회의 계기에 여러 차례 보았으며, 말이 어눌하지만 매우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인도네시아 부임하기 일 년 전. 하산 장관이 평양을 거쳐 서울에 왔다. 나는 당시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차관보)으로서 외교부 장관 회담과 만찬 석상에서 하산 장관 옆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으나 이 나라로 갈 줄을 전혀 몰랐던 때이다. 북한이 2003년도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미국과 충돌하면서 차별대우 받았다고 ARF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그 다음해 2004년도 개최되는 자카르타였다. 이에 하산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을 설득하여 ARF 복귀시키고 귀국 길에 서울을 방문한 것이다. 북한이 마음을 바꾸어 ARF에 다시 참가하기로 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해 ARF계기 남북한 외교부 장관회담을 주선하겠다고 하였다. 실제 그해 자카르타 개최 ARF 계기에 남북한 외교부 장관이 두 차례나 개최되어 세계 언론의 관심을 사기도 하였다.

나의 부임 후 하산 장관과의 첫 면담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교민에 대하여 인상적인 발언을 하였다. 1997/8년 인도네시아 경제 위기 때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를 떠났으나 한국 기업만은 끝까지 남아 자기들과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처음 듣는 소리이지만 가슴을 찡하게 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외교부 장관이 자국에 와 있는 외국 교민사회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최대의 찬사이며, 한국에 대한 따뜻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하산의 대북한 외교의 성공담을 들어서 하산 장관의 업적을 높이 치하하자 매우 좋아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 고위급 인사들로부터 한국 교민들을 높게 찬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06.12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 궁

환영 만찬 때, 또한 07.7 청와대 국민 만찬 때, 한국에 대한 우의를 표명할 장면마다 이 부분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10 자카르타 방문했을 때도 이 말을 듣고 감동받았고, 수행 기자단 사이에 회자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1997/8년 경제위기가 결국 32년 장기집권의 수하르트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대단하였다. 현지 언론은 일본을 포함하여 많은 외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철수 뉴스를 연일 대서특필하였고, 사회적 불안감도 덩달아 올라갔다. 그러한 와중에, 한국의 LG 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존의 가전제품 공장을 대규모로 확장하기로 하고 수 천만 불 추가 투자 계획을 허가해 줄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신청하였다. 혼란, 암울, 절망의 시기에 외국기업의 대규모 공장 증설 소식은 가히 충격이었다고 한다.

이 소식은 이 나라 국무회의에 까지 보고되었고, 국무회의에서 오래 거론되었다고 한다. 당시 외교부 장관 하산, 광공업부 장관 유도요노(후일 대통령) 포함하여 당시 정부 인사,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식인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는 소식이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었다.

이 정도이면 신임 대사가 자신의 포부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양국관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를 위하여 외교부 장관께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면담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하산 장관은 언제든 찾아오라고 응대하였다. 물론 의례적인 응대였겠지만 나의 재임 중 2-3 개월에 한번 꼴로 하산 장관을 면담 신청하였으나(물론 그만한 사안이 있었지만), 한 번도 거절되지 않았으며 신청한 지 2-3 일 내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었다. 내가 외교부로부터 퇴직한 지 6년이 지난 지금도 자카르타를 방문할 때 하산 전 장관에게 면담 신청을 하면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한 만나주고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2009년 제2기 SBY 정부 발족할 때 외교부를 떠났다.

대사는 자신만의 과제(agenda)를 가져야 한다. 나는 인도네시아에 부임하면서 두 가지의 개인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대사가 본부로부터 오는 훈령을 수행하는 외에,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과제(agenda)이자 목표이다.

남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해 보겠다는 욕심이 그 하나이다. 이 나라는 표면적으로 남북한 등거리 자세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특수 관계를 유지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하나는, 두 나라 사이 경

보 보좌관 실, 학계 및 언론계 국제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정부의 대 북한 정책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할 외교부, 대통령 안보 보좌관 실 사람들에게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노력이 주효 해서인지 몰라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 봄 두 차례나 특사와 대통령 안보 보좌관을 북한에 파견하고 유도요노 대통령의 남북한 동시 방문 계획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당시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SBY 한국 방문 계획을 듣는 자리에서 북한 방문도 상정하고 있는지를 문의하면서 인도네시아 측의 관심을 남북한으로 돌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남북한 방문 계획은 2006.7 이후 중단되었다(후술). 그 후 필자는 자신의 개인적 아젠다를 한. 인도네시아 경제 교류 활성화로 돌렸고 이에 전념하면서 북한 문제 관련 업무는 본부 지시를 수행하는 정도로 끝였다. 사실, 손에 쉽게 잡히는 대부분은 경제 문제였다. 당시 석유가격의 폭등으로 촉발된 세계 자원 대란에 관한 해외 뉴스를 매일 접하면서 자원 대국 인도네시아



제 교류의 활성화를 복원해보겠다는 욕심이다. 수하르트 시기에는 많은 한국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었고 경제 교류가 활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자원 대국이자 한국의 제 3 대 투자대상국(누적 금액)이다. 수하르트 붕괴로부터 7-8년이 지났고, 2004년 SBY 대통령의 취임이후 정국이 안정되고 있는 만큼 양국 경제교류의 복원화가 가능한 시기라는 판단이 섰다.

그 중에서도, 나의 경력이 주로 정치 분야였고, 특히 인도네시아 발령 전 3년 반 동안 외교부 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담당 국장과 차관보(외교정책 실장)를 역임하였기 때문에 북한 문제부터 우선 실행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나는 부임 초기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통령 안

주재 대사로서 할 일이 뚜렷해 졌다.

다만, 나의 경력이 본부든, 해외근무든 주로 정치 분야이며 경제 분야 경험은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사관에서 황병태 대사를 모시고 경제 참사관으로 일하면서 배운 경험은 나에게 지침서가 되었다. 무엇보다 목표를 단순화하여 정하라, 그 목표를 향하여 대사관의 역량을 총동원하라, 대사가 앞장서서 장관 등 고위급과 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라, 그리고 주재국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방식을 개발하라 등이다. 특히, 양측이 자본, 기술, 경험을 내놓고 “공동개발, 공동생산 및 공동판매” 하자는 제안은 상대방 설득에 주효하였던 것이 뇌리에 깊이 박혀있다.

(1장 끝)

## 한인회 하반기 정기 이사회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신기엽)는 17일 리츠칼튼 호텔(Ritz Calton Hotel)에서 ‘한인회 하반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5대 한인회 회장 선출’을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제, 문화, 예술 등에 관한 한인회 및 분과위의 활동과 결산 예산에 대한 보고와 심의가 진행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출마한 양영연 후보를 제5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승민 선관위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친 선관위 회의에서 단독 입후보한 양영연 후보를 재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양영연 차기회장은 당선소감에서 “한인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보아왔다”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한인사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인회관 건립,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 분쟁 중재기관 설립, 인도네시아한인회 연합회 결성을 재임기간 중점사업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기엽 한인회장은 “3년동안 최선을 다해왔다.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차기 회장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한인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영연 차기 한인회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 한-인니 경제인 우호 협력의 밤

16일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조태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인니 경제인 우호 협력의 밤’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대사관 강당에서 열린 만찬에는 하리야디 경영자총연합(Apindo) 회장, 수레 수다란또 인력부 총국장, 꾸꾸 수마르도노 관세청 통관국장, 승은호 코린도 회장, 신기업 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 등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8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 주요 인사들을 한국 대사관으로 초청한 조태영 대사는 양국 경제협력에 기여한 하리야디 수감다니 경총 회장, 헤리 수다란또 인력부 총국장, 꾸꾸 수마르도노 관세청 통관국장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한-인니 협력 현황을 논의하면서 향후에도 양국의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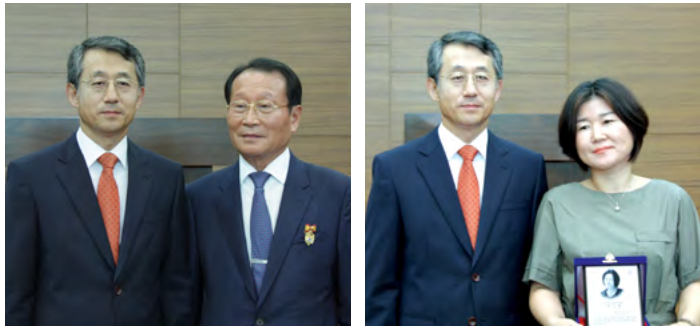
한국 대사관에 처음으로 방문한다는 하리야디 경총 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진

행하고 있는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내년 경기가 반등할 것”이며 “원자재 수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 관광업 등을 활성화 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승은호 코린도 그룹 회장은 “정글과 같이 치열한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 기업인들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 고 격려했다.

그후, 한국의 전통악기인 대금과 가야금 공연, 조태영 대사의 인도네시아 노래로 흥을 돋으며 만찬 시간이 이어졌다.





추천단체(표창명)	소속	성명
제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유공 포상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표창-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자문위원 재캐프리주 바탐한인회회장	이승민 공자영
제17회 재외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시 제목: 엄마의 뜰)	김현숙

<대사표창>

단체	민주평통	PT. JINYOUNG	이지완
	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최석일
	상공회의소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홍중서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 자카르타지회	배응식
	대한체육회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조환국
	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루시플라워	최정순
	KOWIN	KEB Hana Bank	임창혁
	태권도협회	재인도네시아 대한태권도협회	곽영민
한인회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정윤희
		TOBAK(토박)	김평수/서화순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Dinda Meirisa
	땅그랑(반튼)한인회	땅그랑문화원	땅그랑문화원
		PT. SUMBER MAKMUR SUKSES	윤종찬
	보고르한인회	PT. PPF INDONESIA	김진욱
	족자카르타한인회	PT. KOMITRANDO	조현보
	마카사르한인회	마카사르한인회	이재호
	즈빠라한인회	즈빠라한인회	조영성
	동부자바한인회	PT. MIWON INDONESIA	윤형진
수라바야한글학교		윤화정	
협의회	봉제협의회	PT. MUAR TUNGGAL	최종섭
	신발협의회	PT. SINAR MASANDA INDUSTRI	이종윤
	건설협의회	PT. KYUNG HEUNG INDONESIA	최우범
	동포언론인협의회	데일리인도네시아	신성철
	모발협의회	PT. BOYANG INDUSTRIAL CO. LTD	김홍용
한글학교	영사과	족자한글학교	족자한글학교



## ‘2016년 신년 인사회’ 개최

4일, 조태영 대사를 비롯해 서정인 주아세안 대표부대사, 양영연 한인회장 등 한인 단장 및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1층 강당에서 2016년 신년 인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표창장 시상식으로 이어졌다. 대통령 표창에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자문의원 이승민 변호

사(제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유공 포상), 제 17회 재외동포 문학상은 김현숙(시, 엄마의 딸)에게 수여했다. 이어 각 기관과 개인에게 대사표창이 수여됐다.(수상자 명단 참조)

조태영 대사는 신년사를 통해 “붉은 원숭이의 희망찬 새해, 모든 동포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며 참석자들에게 “대사관과 동포 여러분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 해가 되자.”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 모두 창조적 열정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며,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



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서 우리 경제에 활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를 언급했다.

제 5대 한인회를 이끌어갈 신임 양영연 한인회장은 신년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한인단체들이 한마음이 되어 동반 성장해 나가자.”며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강조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한인회는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소속 던다 메이리사(태권도) 선수에게 장학금 3천만 루피아를 후원했다.

공식 행사를 마친 후, 대사관에서 준비한 떡국을 먹으며 새해 덕담을 나눴다.



## 인도네시아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선출 공고

2016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3년) 임기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으로  
다음 사람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성명 : 양 영 연  
나이 : 67 세  
현 직위 : 인도네시아한인회 자문위원  
인도네시아 거주기간 : 23 년

2015년 12월 17일  
인도네시아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의장 이 승 민

## [동포안내문] 연말연시 테러 대비 신변안전 유의 안내

1. 최근 주요국 관련기관들로부터 입수된 첩보에 의하면, 미국 주도 국제연대의 강력한 군사적 공세로 인해 시리아 및 이라크에서 예봉이 꺾인 ISIL 등 테러집단들이 자신들의 후퇴를 만회하기 위해 연말연시를 맞아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와 같은 기획테러를 감행하거나 미국 샌 버나디노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자생적 테러주의자(Lone Wolf)에 의한 테러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미 국무부 정보에 따르면, 유럽지역 국가 및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국가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

2. 현재까지 ISIL 등 테러집단이 인도네시아에서 테러를 자행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징후는 없습니다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다중 밀집 지역 및 시위 장소 방문 자제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포여러분들께서는 신변안전 위협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 : 021)2967-2580

○ 당직전화 : 0811-852-446

○ 대사관 대표 이메일 : koremb\_in@mofa.go.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 및 회장 이.취임식

8일,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꾸닝안 리즈칼튼호텔에서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 양영연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회장, 한인회 신기엽회장, 상공회의소 송창근 회장, 한인 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장, 선수단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0월에 치러졌던 전국체육대회에서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은 금 4개, 은 3개, 동 10개의 메달을 거머쥐며 대회출전 5년 만에 종합 3위로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조태영 대사는 “3위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둔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재인도네시아 한인들의 대표로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기엽한인회 회장은 “체육회 선수단은 항상 단합하는 단체로 한인사회의 자랑이다.”며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로 3관왕을 달성한 볼링의 조환국선수와 태권도의 인다선수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송창근회장은 “스포츠맨이 존경받는 이유는 인내, 정직,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더욱더 존경받는 스포츠

맨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하며 체육발전기금 미화 12,000불을 전달했다.

신임 제2대 최병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인 동포사회가 어려운 시점에 흥을 돋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년 97회 아산 체전에서 금메달 5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심기일전하는 체육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임기 1년이 경과한 뒤에는 수석부회장을 선임하여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는 전통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엔 전임 회장의 집행부인 감사와 사무총장의 임기 또한 함께 마감하여 차기 집행부가 ‘새 술은 새 부대’라는 타이틀로 체육회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 융성한 한해를 결산하는 날이기도 한 이날 행사에는 체육인과 가족 그리고 일반 교민들이 참석해 기념식과 문화행사로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 Fun-Act Art Mural 2015

MURAL PERSAHABATAN INDONESIA - KOREA

Auditorium Institut Kesenian Jakarta

14 Desember 2015



## CIKINI 한-인니 우정의 벽화거리 자카르타의 걷고 싶은 거리, 낭만이 흐르는 향수어린 거리

한국-인도네시아 우호 친선의 상징물인 한국식 벽화 마을이 자카르타 도심에 조성됐다.

14일, 자카르타 예술 대학 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자카르타 부 주지사를 비롯해 중부시장과 자카르타 예술대 찌뜨라 드위 미술대학 학장, 조태영 대사, 신기엽 한인회장, 임경애 교수 등과 학생, 마을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인회는 지난 1년 동안 임경애 교수(내셔널 대학교 한국 인도네시아 교류협회센터 센터장)와 찌뜨라 드위 학장, 자카르타예술대학, 중부 자카르타 시와 함께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걸거리 벽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한국의 이화 벽화마을을 답사 후 연구, 자카르타 지방정부의 허가과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친 사회공헌 사업이다.

신기엽 한인회장은 “낙후된 찌끼니 마을이 주거환경개선과 방문객 유치로 통해 활성화될 것”



이라며 “찌끼니 벽화마을은 양국 미술인, 지역 주민, 청소년 등이 힘을 합쳐 만든 한-인도네시아 우호친선의 상징물” 이라고 설명했다.

임경애 교수는 “많은 주민들의 동참으로 찌끼니 지역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며 7일간 늦은 시간 까지 구슬땀을 흘린 25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노후한 도심 마을에 양국의 상징인 남대문, 한옥 마을과 모나스(Monas) 탑, 바틱(Batik) 문양 등을 그림으로 장식해 생기를 불어넣었고, 음식점이 나란히 있는 찌끼니 거리는 깔끔한 카페촌으로 변모했다.

지역의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하는 이번 행사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도심으로 탈바꿈됐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길이 될 것이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가 지난 1년 동안 임경애 교수와 자카르타예술대학 그리고 자카르타 중부시와 함께 추진해 온 “한.인니 우정의 벽화마을” 조성사업은 한국의 이화 벽화마을의 개발 사례를 자카르타 Cikini 지역에 적용시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도심에서 디자인이 낙후된 지역의 예술화로 마을을 활성화시키며 도심 재생 기능을 극대화시키자는 사회 공헌 사업입니다. 또한 한국의 벽화마을 컨셉을 자카르타에 적용시키는 프로젝트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길을 만드는 사업이며 많은 주민들의 동참으로 Cikini 지역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 해외이사화물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 해외이사화물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구 분	사 유
적정한 비용	- 이사 비용이 낮으면 서비스 수준은 저급 - 비정상적인 덤핑가격 제시하면 일단 피하기
물품 확인	- 품명·수량 쌍방 확인으로 분실위험 방지하기 - 이사물품 진행과정 수시로 확인하기
귀중품 직접 보관	-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 분실방지 - 피아노 등 훼손가능성 높은 물품은 주의 촉구
보험 가입	- 계약서 작성시 파손, 분실,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상근거 명확히 작성하기 - 파손·분실물품은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 수집하기
철저한 정보 검색	- 지인이나 경험자가 추천한 검증업체가 우선 - 인터넷 검색으로 평판이 낮은 업체 피하기
허가받은 기업	- 국가기관에서 허가받은 업체를 이용하기 - 무면허 업체 계약은 쉽고 보상은 어렵다

### 피해유형별 대처요령

사 례	대처방법
1. 손상, 파손, 오염	① 사고증빙 확보 : 사진, 손상정도 확인자료 확보 ② 서면 사고통보 : 모든 책임당사자에게 서면상의 사고통보서한 발송(B/L, 보험증권 원본, Packing List 등) ③ 손해액 평가, 산정 ·전부손실 : 보험증권상 가입 금액 ·부분손해 : 수리 후 영수증, 수리 전 견적서
2. 분실사고	① 사고증빙 확보 : 물품인수인도증(D/O)에서 확인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인도시 반드시 수량 확인·서명 ② 서면 사고통보 : 모든 책임당사자에게 서면상의 사고통보서한 발송(B/L, 보험증권 원본, Packing List 등) ③ 손해액 평가, 산정 ·전부손실 : 보험증권상 가입 금액 ·부분손해 : 수리 후 영수증, 수리 전 견적서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 제 2회 한국 대사배 바둑대회



5일, 토요일 롯데쇼핑 에비뉴에서 열린 대사배 바둑대회가 참가자들과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인 13명을 포함하여 7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참가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고 갑조(1급-3급) 을조(4급-6급) 병조(7급-9급) 총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이번 대회에는 스위스 리그 방식으로 치렀으며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기량을 뽐냈다. 우승자에게는 상장, 상패, 상금 외 참가 기념품을 제공했다.

한국대사관을 주최하고 한국기원 아시아바둑연맹 한인회 롯데그룹 인도네시아 바둑협회 PT. Tunas Unggul Indonesia가 후원하였다.

인도네시아 바둑협회 관계자는 “바둑 인재 양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들이 바둑을 두면 집중력과 인내심을 키울 수 있고 학습능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 며 “인도네시아 현지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실력이 많이 좋아져 보람을 느낀다” 고 말했다.

남성들의 전유물이라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남녀학생 참가자들도 있어 눈길을 끈 이들은 대국

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등 한 수마다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보였다.

오전 9시에 대국을 시작, 오후 4시 50분 중국까지 장시간 이어진 대국에서 혼수꾼들이 대거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고, 한 수 한 수마다 혼수꾼들은 조용히 탄식과 감탄을 뱉어내며 선수들을 긴장케 했다.

한.중.일 3국이 각기 매년 개최하는 세계 아마츄어 바둑대회에도 초청받아 중간 이상의 성적으로 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바둑협회 관계자는 2018년 아시안게임이 인도네시아로 유치 결정됨에 따라 바둑이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A조. 우승 김진솔
- B조. 우승 Muhamad Rusli Anyar
- C조. 우승 Iman Luthfi Hazazi

# 하리 다르소노와 함께 한 굿바이 2015년

## Harry Darsono Foundation since 1979



12월 13일 늦은 오후 자카르타 소재 Axa tower 7층 홀에서 하리 다르소노 박사는 1979년 설립한 하리 다르소노 재단을 중심으로 자신의 사업과 패션, 교육, 박물관, 엔터테인먼트, 컨설턴트 등 다양한 업계에서 영향을 주고 나누는 지인들을 초대하였다. 2015년을 보내며 사회 문화적으로 기부하고 공헌한 그간의 행보에 따른 감사의 기쁨을 교제를 통해서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하리 다르소노. 그의 이름은 Mercelino Dominicus Savio Harry Daroeharto Darsono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애칭으로 하리, 혹은 하리 다르소노로 부른다. 그의 아버지 Haji Darsono는 담배 사업과 패션 업에 종사하였다. 하리는 1952년 3월 15일 동부 자와 Mojokerto에서 출생하여 9명의 형제들과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프랑스와 미국과 수라바야에서 그림과 음악, 패션과 방송 엔터테인먼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을 인정받았다. 특별히 그의 작품은 고가의 재료를 이용하여 손으로 수를 놓는 아날로그 방식과 현대적인 자수와 인도네시아 특유의 전통 문양과의 배합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고급 브랜드 패션 업계와의 교류로 다양한 문양과 디자인 공정을 거친다. 크리스천 디올, 이브생 로랑, 샤넬, 장 폴, 지방시 등의 패션업계와 디자이너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겸 뮤지션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의 기업과 패션 활동의 수익금으로 특수 학교와 시설을 후원한다. 후진 양성과 사회 헌납을 36년째 실천하고 있는 하리박사는 개인 박물관을 소장하고 있다. 하리 박물관은 인니 정부로부터 관광지로도 인정받게 되었다

하리박사의 멋진 피아노 연주에 맞춰 인니 소프라노 가수 이브 베라 씨의 아름다운 독창이 홀을 가득 채우며 행사는 시작되었다. 각국의 대사와 지인들을 초대한 가운데 멋진 공연들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전통 가믈란 연주에 맞춰 춤과 이야기극이 솔로 궁중 무용수들의 무용으로 펼쳐지고 재즈와 팝과 한국의 아리랑이 함께 어우러져 참석자들의 어깨를 들썩거리게 한 흥겨운 시간이었다.

특히 조태영 대사님과 사모님께서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으며 함께 부르며 하리 박사와 참석한 손님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 하듯이 무대를 중심으로 하여 빙글빙글 돌면서 아리랑이 우리를 또 다시 하나 되게 하는 벽찬 감동이 밀려 왔다. 그 순간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내손에 더욱 힘이 들어가며 우리의 가락 아리랑을 더 아름답게 부르기 위해 내심 애썼던 순간이 생각나서 다시금 미소가 번진다.

참석한 대부분의 지인들은 하리 씨의 작품인 모자와 의복으로 치장하고 특별한 분위기와 공연을 즐겼다. 마무리 즈음에 세계 속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특별한 한 사람 하리 다르소노 박사의 재능과 예능, 사업과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계인들의 만남의 장이 문화 교류의 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 사람의 중요함, 한 사람의 능력과 재능이 세상에 크고 작은 기쁨이 되고 새로운 시대와 관계에 좋은 매개체가 됨을 바라보며, 한\*인니 문화 연구원이 그 통로의 역할을 담당해 줌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조은숙(한국어 강사, Global Jaya International School)





## 화이트 콘서트

2015년 12월 6일 오후 4시와 6시에 두차례의 화이트 콘서트가 롯데 쇼핑 에비뉴 3층 Fun Atrium에서 열렸다. 학생과 성인 공연연주자가 100여명이 될만큼 규모가 크고 성대한 음악회였다.

오픈 공간의 장점인 넓은 공간과 좌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서 관람하는 관객들도 많았다. 현지인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감상하였다.

“화이트 콘서트는 2009년 부터 계속 연주회에서 공연을 했었으나 작년 부터 몰로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공연장에서는 티켓을 팔아 돈을 내야만 공연을 볼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하여 감동과 기쁨을 함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라고 지휘자 신정일은 소감을 밝혔다.

Jakarta Youth Orchestra가 웅장하고 힘있게 ‘Christmas Eve / Sarajevo 12/24’ 로 화이트 콘서트의 막을 열었다.

뒤이어 Jakarta choir 가 ‘For unto Us a Child is Born’ 과 ‘Glory to God’ 는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알리고, Jakarta Children’ s Choir가 합창한 ‘I Saw Three Ships Come Sailing In’ , ‘Silent Night Holy Night’ , 과 ‘Christmas in the Air’ 로 연말 크리스마스의 기분을 한층 살려주었다.

Women’ s Choir의 ‘The First Noel’ 이 청아하게 울려 퍼졌고 다시 Jakarta Youth Orchestra 의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가 연주되면서 평화로움이 가득하다가 곧이어 Sleigh Ride’ 의 경쾌함에 그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즐겁게 리듬을 타며 흥



겨운 시간에 젖어드는 등 다채로운 곡들을 즐길 수 있었다.

Soprano 박어진이 솔로곡 ‘O Holy Night’ 을 불렀을 때는 몰 전체가 커다란 종이 되어 울리는 듯하여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지막 무대는 다같이 ‘The Many Moods of Christmas’ 를 연주하며 한시간 이상의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공연이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을 감상한 SWA 12학년 유승환 군은 ‘음악으로 자카르타 현지인들과 우리교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자카르타 극동방송 문화사역팀은 성인 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어린이 합창단으로 이루어져 문화적 달란트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문화선교단체이다.

학생기자 곽한규 (SWA 12)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 - 국외테러로부터 우리국민 안전 및 필리핀 내 우리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

1. 정부는 금 12.23(수) 국외 테러 등에 대비한 재외국민보호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해외 테러동향을 평가하고 파리 테러 이후 두 차례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협의하였다.

○ 이기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국정원, 경찰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는 특히 연말연시에 유럽 등지에서 국외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2. 모두발언에서 이 대사는, 금년 11월 파리테러를 계기로 △테러발생지역이 중동을 넘어 유럽, 미국, 러시아로 확대되고 있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인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생적 테러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에서 테러를 사전에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국민 피해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이어 새로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할뿐만 아니라, 우리국민들의 ‘스스로 안전의식’도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이 회의에서는 향후 추가 계획으로 △해외 테러 동향 모니터링 강화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예외적 허용요건 강화 △취약국민 대상 안전간담회 개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재외국민보호 매뉴얼 재정비 등 세부 이행 필요사항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정부의 테러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테러 위험이 높은 국가에 전담인력 채용 △테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조언을 받기 위해 테러위기전문 컨설턴트 고용 △테러 다발국가 주재 공관직원의 테러대응 교육 정기 실시 등 방안을 추진하고 △내년 1월 중 테러위험지역에 정부합동 안전점검단 파견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히, 참석 부처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국외 테러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자신의 해외여행지의 위험수준을 먼저 알아보고 정부지침을 이행하는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 현재 각국의 여행정보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공지.

- 이러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기존의 방안 이외에도 △항공사, 여행사와 협의 하에 해외여행 준비 시 사전에 목적지의 여행정보단계를 알리는 방안과 △교과서를 포함한 정규 학교교육을 통해 해외안전여행(여행정보제도 등)의 중요성을 알리고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가르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현재 여행정보단계는 국가별 맞춤형 로밍 SMS, 공항 입간판, 여권 서명란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음.

※ 현재 시행중이거나 기시행한 국외테러 대책.

- 파리 테러 관련 ‘재외국민 안전대책 및 종합 상황 점검회의’ 2회 개최.

- 테러 등에 대한 안전 정보의 대국민 적시 제공 : 프랑스 및 벨기에 여행경보 조정, 테러 등 위험 사건 발생 4개국(레바논, 말리, 말레이시아, 필리핀) 여행경보 발령, 연말연시 전재외공관 재외국민보호 태세 강화 조치 등.

-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테러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지역별 공관장 회의 또는 사건.사고 영사회의 개최, 정부 합동 안전점검단 중동국가 파견.

- 전방위적인 대국민 해외안전 의식 제고 추진: 해외 방문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3단계(여행계획시-출국직전-도착직후) 목적지 여행경보단계 확인 권고 시행, 연말 여행성수기 해외안전 관련 대국민 기획홍보, 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위험국가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

4. 한편, 지난 수년 간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범죄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필리핀 내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 2015.11월 한-필리핀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것이며, 한-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당국과 협조하여 필리핀 경찰서 중 한인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의 수를 3개에서 6개로 증설하고 △코리안데스크에 파견하는 우리 경찰관을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증원

하기로 하고 △한인 밀집지역 전담 파출소를 개소하기로 하였다.

※ APEC 계기 양국 정상회담(11.18)시 우리 대통령은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요청하였고, 아키노 대통령은 우리국민 보호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

○ 또한, 우리 정부는 △필리핀 내 여행경보단계 재검토를 위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주필리핀 대사관과 주세부 분관에 재외국민 보호 인력을 대폭 증원할 것이다.

※ 현재 시행중인 필리핀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대책

- 필리핀 한인사회의 자위방범역량 강화 : 지역별 치안 간담회 개최, 한인 밀집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지원, 한인회 자위방범활동 활성화

- 필리핀 경찰의 역량 강화 지원 : 우리국민 피살사건 발생시 수사 전문인력 현지 파견(경찰청), 필리핀 법집행 기관 인사 방한 초청 등 네트워크 구축

- 필리핀에 대한 우리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 필리핀 여행경보단계 상향 조정, 필리핀 여행객에 홍보전단 12만부 배포 등 안전공지 강화 /끝/

재외동포영사국 재외국민안전과

## KOICA, 자바북부해안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이 인도네시아가 해안침식이나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이카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북부자바 자카르타-스마랑 구간 해안지역 총 760km<sup>2</sup>에 대한 수치지형도 제작과 해안지역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자바북부해안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코이카는 지난 10일 자카르타 소재 크라운플라자호텔에서 “자바북부해안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김병관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인도네시아 측에서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도니 아즈단 수자원-관개국장, 국립지리원(BIG) 프리 삿마사리 공간경계구획국장 및 유관부처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관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환영사에서 “자바 북부 해안지역의 1:5000축척 상세지도와 해안관리시스템 등을 개발한 바, 국립지리원(BIG)의 추진력 아래 일반 국민들도 이를 활용하여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희망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이 사업의 결과물들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기를” 염원했다. 또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한국 정부와 KOICA는 인도네시아의 친구로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도니 국장은 “코이카의 지원 및 사업 수행기관 측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홍수 피해, 재난,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이 사업과 같은 기초 작업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 바, 이 사업을 통해 구축한



방대한 데이터가 북부해안의 재난대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항만개발계획 등 여타 인프라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국립지리원(BIG) 프리 삿마사리 공간경계구획국장 또한 “이 사업으로 축적한 데이터는 국토와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 근간이 될 중요한 자료”라며 “대축척 지도뿐만 아니라 각종 기자재 공여와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고마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완료보고회에 참석한 유관부처 관계자들은 사업성과 소개 및 해안관리 시스템 시연을 경청하고, 이후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문의한 “이 사업을 통해 구축한 지리정보를 제공받고 싶다”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관계자는 해안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코이카는 “자바북부해안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하여 만든 성과물을 수원국 부처에 인계할 계획이며, “인도네시아 수도권 통합 해안 종합개발사업(NCICD)”과 같은 후속 사업 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연재해 대응향상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KOICA, 인니 여성 동창생 캠페인 및 동창회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지난 12월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중심가에서 KOICA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성 동창회 회원들과 함께 양성 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HeForShe’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인도네시아 여성부국제협력부 롤리 알트루이스와티 차관보 및 발렌티나 긴팅(여성동창회 회장) 국장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관계공무원 및 KOICA 귀국연수생, KOICA 사무소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롤리 알트루이스와티 여성부 차관보는 축사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 지위 향상을 지지하는 남성들의 본 행사 지원 및 참여는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여성과 남성이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파트너와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여성동창회 운영진들의 자발적인 준비 아래 ‘여성의 사회적 역할 및 권리 강화’, ‘여성과 아동 및 소외 계층 보호’ 등의 문구가 적힌 배너를 제작하여 거리 캠페인이 이루어졌다.

캠페인 슬로건인 성 평등을 위한 연대운동 문구와 공식 마크가 새겨진 스티커와 깃발, 캠페인 내용이 소개되어있는 홍보 리플릿을 행인들에게 전해주었다.

아울러,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된 차량 운전자 및 택시 기사들에게도 캠페인 홍보 물품들을 직접 전달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약1시간 동안의 캠페인이 끝난 후, 자카르타 사리판퍼시픽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여

성 공무원 역량강화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여성동창회 결성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소장 및 여성부발렌티나긴팅 국장을 비롯하여, KOICA 귀국연수생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환영사에서 “KOICA는 사회, 경제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을 목표로 여성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여성 동창회를 결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발렌티나 긴팅 여성 동창회 회장은 “KOICA 여성 동창회 활동을 통해 여성과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여성 공무원 간 돈독한 파트너십을 맺기를 바란다” 고 희망했다.

KOICA는 한국에서 습득한 지식 및 성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총동창회, 석사과정 동창회, 수라바야 지역동창회, 여성동창회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잠재력 발현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청년들의 인도네시아 취업을 돕기 위한 해외취업지원협의체 발족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우리 청년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12월 17일(목) 발족하였다.

앞서 정부는 세계경제 침체, 저성장 지속 등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주요 경제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3년 청년인력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K-Move” 브랜드로 단일화하고 내실화, 체계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카르타를 비롯한 11개 국가, 도시의 KOTRA 무역관에 해외취업사업을 전담하는 K-Move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자카르타무역관의 K-Move센터는 구인기업 발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글로벌인턴십 연수과정 운영, 청년과 기업을 연계시켜주는 채용상담회 매월 개최, 멘토링 등 해외취업 사업을 활발하게 벌여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년간의 해외취업사업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11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인력 해외취업 촉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 따라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민관 합동으로 해외취업 촉진, 취업정보 수집 및 공유, 취업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협의하기 위한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발족하게 되었다.

해외취업지원협의체는 대사관이 주도하여 코트라,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센터, 코이카, 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및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봉제협의회, 신발산업협회, ICT협회, 의료기기협회, 지상사협회 등 경제단체와 글로벌청년사업가양성과정(YGBM), 신라대-UMN 코리아센터 등 해외취업연수기관(K-Move스쿨)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12월 17일(목) 대사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해외취업지원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조태영 대사는 2015.12.31.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거대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는 아세안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 받는 인도네시아에 우리 청년들이 적극 진출하여 해외일자리 영토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글로벌시장을 개척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번영하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청년 해외취업에 대한 우리기업들과 한인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자카르타무역관은 K-Move센터 사업과 2016년도 사업방향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EPS 센터는 해외취업성공 장려금, K-Move스쿨 등 지원정책과 해외취업 정보웹사이트인 월드잡 플러스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ITB 자띠낭오르 캠퍼스에서 41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중인 YGBM 연수팀장이 연수과정의 특성과 성공사례를 홍보하였으며, 신라대-UMN 코리아센터에서도 연수과정 및 실적을 소개하고 우리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앞으로 우리청년들의 인도네시아 취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통해 정부기관, 동포사회, 진출기업 및 연수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2016년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는 한편, 협의체를 통해 구직청년과 우리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해외취업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사제공: 재인도네시아 대사관)



## 명사초청 MOU

2015년 12월 28일 재인도네시아 한인문화 예술단체 총 연합회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국제 문화교류 증진과 한국문화 홍보를 위해 문화 예술명사초청 사업에 대한 협약(2차)을 체결하였다.

이날, 임시 정기 총회를 통해 기존 강희중 전임회장에서 사공경 신임 회장을 선출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여 2016년 1월 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 완구협회 송년회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봉제완구 업계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특유의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봉제완구인의 힘과 저력을 보여준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 는 이종현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2015 완구협회 송년행사가 12월5일 자바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앞으로도 완구협회가 한 길을 걷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힘을 모아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 늘 푸른 교회, JIKS에 장학금 기탁



자카르타 소재 '늘 푸른 교회' (담임 목사 김신섭)는 12월 10일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교장 김승익)에 1억 루피아의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1999년에 설립된 '늘푸른 교회'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억 루피아의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JIKS는 전달받은 장학금을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인니 전국 아동폭력 대응 세미나, 박현순 원장 강연

인도네시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식과 실태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8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립대학 UNJ 주최로 열렸다. 박현순 리틀램 원장이 강연자로 초청을 받아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사례와 정부의 대처,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아동 특별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 리틀램유치원 제공]



**한인.인니 문화연구원** www.ikcs.kr

매주 목요일 바티실습

2016년 1월 14일부터 10:00-12:00

290회 문화탐방

**Kota Tua (제5차정기투어)**

일시: 2016년 1월9일 (토) 9:00-14:00

집결: 카페바타비아

진행 및 신청: (SMS/KT) 안미경 수석팀장 081514216766

최우호 팀장 081290478845/ 0816-190-9976

회비: 30만루피아(비회원 35만) 점심 등 일체 포함





## 순간 & 영원



먼지로 떠돌던 한 처음을 지나  
이마 높은 바위산의 때를 건너서  
부딪히고 깨지고 구르다가  
구르다 멈춰 선 어느 산마을  
물가에 엮드린 돌멩이 하나, 나는

떠도는 구름에게 손 흔들다가  
숲을 흔들며 태어나는 바람을 읽다가  
물머리부터 번져오는 햇귀를 모아  
희망 찬 새해, 그렇게 쓰다가  
그러다가.....

깊고 고요하게 합장례를 올릴 뿐



## 2015년 12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 2015년도 자카르타 노동 문제 급증해

인도네시아의 노동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법률구조공단(LBH)은 올해 수도권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민원 244건을 접수했으며 민원 건수는 지난해(193건)보다 26%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행정구역별로 가장 민원이 많았던 곳은 남부 자카르타로 총 40건에 달했다. 이어 동부 자카르타 37건, 반뜰주 땅오랑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으로는 크게 노사관계와 노동자의 기본 권리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고용계약 갱신을 반복해 인력법 제5조9항에 반하는 사례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금지하는 기업에 대한 불만 등이 접수됐다.

넬슨 시모라 LBH 관계자는 정규직과 계약직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 직원보다 14%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주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보다 17.5%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측에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니 로피아톨 LBH 관계자는 노동조합을 조성하는 것도 큰 노사 분규 쟁점 중 하나라며 일부 기업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갖는다면서 노조 결성을 막는 것은 법에 위촉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 노동 보험 미가입 기업, 꼼짝마

노동 보험 미가입 기업들은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자바 주 정부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직원들의 노동 보험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경고했다. 주정부는 BPJS측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감시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암시했다.

노동국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지역 최저 임금(UMK)을 적용하고는 있으나 이에 비

해 노동보험 가입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직원들의 노동 보험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기업의 구체적인 기업명과 기업수, 그리고 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BPJS는 자바 주와 인접한 족자카르타 주 기업 중 BPJS노동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2만 7,000여 개사로 이중 8,500여개사가 올해 신규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입된 노동자는 자바 및 족자카르타 주에서 총 135만명에 달하며 올해 신규 가입자는 47만 6,000여 명으로 집계 되었다.

## 고젝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

버스 택시 등 인도네시아 대중교통 서비스들의 불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고젝(Go-jek) 서비스의 성공으로 인해 시민들은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블루버드, 트랜스 자카르타 아울러 꼬빠자 같은 영세 사업자들이 고젝과의 불편한 동거를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로 불리는 고젝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다. 이처럼 편리함으로 무장한 고젝 서비스로 인해 지금까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 있던 고객을 빼앗긴 경쟁

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결국 정부가 고젝 서비스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항의 또한 만만치 않다. 이용자들의 반발로 인해 정부는 제재 방침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으며 고젝측에 “대중 교통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현실적인 가격을 정해달라.” 고 제안할 뿐이었다. 현재 고젝 서비스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주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법 정비를 추진해 여타 대중교통 사업자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것으로 보인다.

## '남은 가족 부대에 새 포도주' ...인니 테러단 내 사상적 교체 일어나

테러 전문가는 지난 몇 주간 체포된 테러 용의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변화를 분석했을 때 인도네시아 내에서 활발히 활동 하는 테러 조직단 사이에 사상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테러 전문가 알 짜이다르는 22일, 경찰의 발표를 인용해, 테러단이 자살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암호로 기존에 “신랑(groom)”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최근 “콘서트(concert)”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짜이다르는 현지 언론인 꿈빠스에 “이것은 마치 남은 가족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격이다. 사람은 같지만 조직은 새로워 지는 것” 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급진주의적 이슬람 국가(NII)의 전 단원이기도 했던 짜이다르는 인도네시아의 테러 조직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조 이슬람교의 강경노선인 와하비즘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와하비즘 자체가 3개의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각 무르지아(Murji' a), 지하드

(Jihad), 딱지리(Takjiri)며, 첫 두 사상이 인도네시아에 만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시리아에서 귀국한 인도네시아인은 약 100명에 달하며, 이들이 IS가 주입하는 와하비 딱지리 사상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딱지리를 추종자들은 같은 사상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로 여긴다. 그들의 자살 폭탄테러와 잔혹한 공격 방식은 알카에다를 모방한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이슬람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국가 경찰의 반테러단 덴수스 88(Densus 88)은 최근 몇몇 도시에서 기습 작전을 펼쳤고, 크리스마스 와 연말을 맞아 테러를 기획하던 테러 조직단원 9명을 체포했다.

국가 경찰청장 바드로딘 하이띠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들인 인도네시아 과격주의 단체 자마아 이슬라미야(Jamaah Islamiyah) 소속이다.

## 세수 사상 첫 '1,000조 루피아' 돌파...7년 사이 2배 증가

밤방 브로조노고로 재무부 장관이 16일 열린 인도네시아 금융분야 주요인사 행사에서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상황 평가 및 내년도 전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안따라(Antara)

밤방 브로조노고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12월 25일 기준 올해 세수가 지난해 982조 루피아를 넘어 사상 처음 1천조 루피아를 돌파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부진한 경제 성장 속에서도 개인과 법인 소득세의 징수에 주력하여 사상 최고액의 세수를 확보했다.

밤방 재무장관은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동안 1,100조 루피아 돌파를 목표로 한다”면서 연내에 추가 세수의 증대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영은행들은 오는 31일까지 세금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분에 부과되는 세금과 주요 재벌의 납세에 예정에 따라 추가적인 세수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재무부는 전망했다.

앞서 이달 1일, 재무부는 이례적으로 세수 확보가 낮다는 책임을 지고 국세청장이 사임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그리고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11월 27일 기준 806조 루피아였던 세수를 약 1개월 만에 200조 루피아 넘게 거둬들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무부의 정책을 칭찬하는 한편, “왜 연말이 되어서 세수를 늘릴 수 있었는지 의문” 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5년 세수는 지난 2008년의 534조 루피아에서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세수 목표치는 높아, 올해 역시 목표로 하는 1,294조 루피아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밤방 재무장관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납세자 수는 2,700만 명이지만, 매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은 1천만 명뿐이다. 정부는 세금 체납이 많은 만큼 납세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크다고 판단하고, 추가 세수 실현을 위해 적합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세수 증가에 기대를 거는 정책 중 하나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금 사면(Tax Amnasty)법이다. 이 법안은 과거 미지급 세금을 일부 사면해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문가들 가운데는 납세의 여지가 있는 세수 규모가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인 1,50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 인도네시아 정부, 항공 부품 관세 철폐 8차 경제패키지서 발표

다르민 나수띠온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왼쪽)과 뿌라모노 아눔 내각 사무총장(오른쪽)이 21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제8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따라(Antara)  
인도네시아 정부는 21일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제8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새 패키지에는 현재 5~15%로 설정된 항공 부품 산업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당국은 적절한 부품을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정비, 수리, 점검(MRO) 분야의 산업 육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양질의 제품으로 교통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은 “근 몇 년간 국내 항공산업이 급격히 성장했다. 그러나 비행기 유지 및 보수는 해외에서 수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조사 결과 주요한 부품이 부족하여 국내에서 수리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품 관세를 제로로 조절함으로써 인

도네시아 MRO 서비스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당국은 관계 기관과 세율을 조정한 뒤 장관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부르하네티 인도네시아 항공사협회(INACA) 부회장은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새 패키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루다 인도네시아와 라이언 큰따리 항공 등이 본 정책으로 운영에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또, 디르간따라 인도네시아(Dirgantara Indonesia)와 같은 항공기 제조 산업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항공사는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과 에어버스에 의존하는 식으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리프 위보워 가르다 인도네시아 사장에 따르면 가르다의 항공기 유지보수 비용은 총 운영 비용의 15%로, 매년 38억 달러가 투입된다.

## 자카르타 사무실 임대료 세계 41위...1위는 런던

2015년 3분기(7~9월) 세계 주요 50개 도시의 사무실 임대료 순위에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1분기 32위에서 41위로 9단계 하락했다고 22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전했다.

세계 부동산 정보를 전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World Property Journal’의 조사에

의하면, 자카르타의 사무실 임대료는 평방 피트(m<sup>2</sup>) 당 65.11 달러였다.

가장 고가를 형성하는 곳은 영국 런던의 센트럴 웨스트 엔드 지역으로 무려 272.56 달러에 달했다. 뒤를 이어 홍콩 센트럴 상업지구, 베이징 파이낸셜 스트리트, 뉴델리 코넛 플레이스, 도쿄 마루



노우치 / 오테마치가 상위권에 올랐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자카르타 외에도, 싱가포르(16위), 베트남 호치민(46위) 등이 순위권에 진입했다. 자카르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의 타이페이(43위), 호주 퍼스(49위) 등을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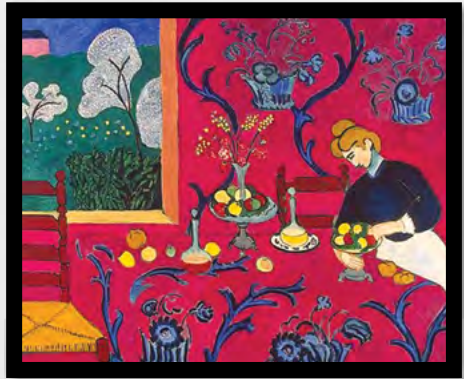


# 마티스, 앵무새와 인어

작가 : Henri Matisse (1869~1954)  
작품 : 앵무새와 인어  
(The Parakeet and Mermaid, 1952)  
과슈 색종이 콜라주  
337 x 768.5 cm

과슈- 수용성의 아라비아고무를 섞은 불투명한 수채물 감 또는 이 물감을 사용하여 그린 그림.

새해아침. 빛과 함께 365개의 색들이 날아오른다. 거대한 공간에 가위로 소요된 색지들이 새처럼 날고 있다. 20C 현대미술의 첨병 앙리 마티스가 해방시킨 색들이다.



19세기말 아카데미한 그림에 반기를 들고 나타난 인상파. 뒤를 이은 후기 인상파..... 인상주의 그림도 보수적으로 여겨질 무렵.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색채와 형태의 대변혁이 일어났다. 야수파(Fauvism)로 전개되는 색채의 해방과 입체주의(Cubism)로 나타난 형태의 해방이다. 평생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띠동갑 마티스와 피카소가 각각 그 중심에 있었다.

<마티스 부인의 초상>에서의 초록색 얼굴, 파란 토마토, 붉은 인체 등 마티스의 색채는 야만적이란 평을 받았다. 상식적인 색을 뒤엎고 극히 주관적인 색채를 추구한 그는 표현주의에도 영향을 주었다. 마티스의 몰상식하고 조악할 정도의 색채혁명에 뒤이어 피카소에 의한 형태의 해방이 이어졌다. 끊임없이 기존의 것을 뒤엎는 미술사조가 짧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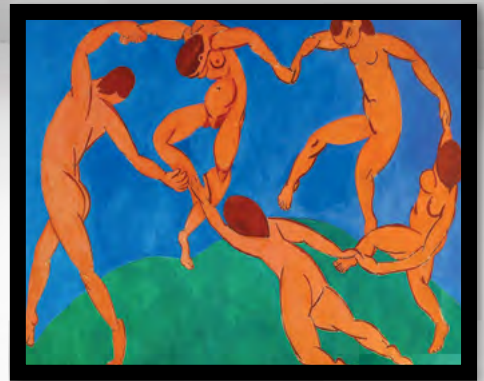


기로 등장했다. 급기야 20C 후반에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작품을 내놓는 경지(境地) 혹은 지경(地境)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현대미술의 새 지평을 연 화가가 앙리 마티스이다.

프랑스 북부에서 곡물상 아버지와 아마추어 화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법률공부를 하던 청년 마티스. 그는 20대 초반에 병상에 있던 중 그림을 접하게 된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파라다이스로 가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뭔가가 나를 몰아갔다.” 그는 간단히 인생의 진로를 법률가에서 화가로 바꾼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하루 12시간 이상을 작업에 몰두했다. “내 작업의 주요 목적은 명료한 빛을 획득하는 것” 이라고 할 만큼, 자연의 빛을 머금은 ‘열린 창’ 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열린 문’ 을 즐겨 다루었다. <빨간 실내>, <춤>, 모로코 풍의 실내와 여인들의 모습을 원색과 보색 대비의 강렬한 색감으로 표현했다.



현대미술사에 큰 획을 지은 그는 70대 초반 관절염과 암수술로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붓 대신 가위를 들었다. 유화물감이



아닌 과슈로 만든 색지를 만들고 가위로 더욱 명료한 선을 만들어냈다. 젊은 시절 그의 색채를 야만적이라 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치하고’, ‘장식적’ 이라 폄하했다. 그러나 색종이 오리기 작업(Cut-Outs)은 또다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었고 상징적인 작품이 되었다. 생의 두 번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고 새로운 세상으로 도약하는 뗏목이 되었다. 자유롭고 찬란하게 춤추는 색종이 작품을 보면, 70대의 호기심 많고 탄력성 있는 소년 마티스가 가위를 들고 색종이 놀이 하는 모습이 상상 된다.

무신론자 마티스가 79세에 이르러 모니크라는 간호사와의 인연으로 방스의 로자리 성당의 보수 작업을 하게 된다. 성당의 설계, 벽화, 스테인드 글라스, 십자가, 촛대, 제의 등 일체를 디자인 했고 제작했다. “나는 균형이 잡힌 무구(無垢)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지쳐버린 사람에게 조용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그림을.” 그의 소망대로 방스에 배당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화사함과 고요, 단순함을 선사한다. 마티스 예술의 정점이며 단순함과 명료함과 빛이 어우러진 하나의 조형이다.

해초와 과일들이 날아다니는 거대한 공간에서 뛰어오르는 인어공주와 마주보고 있는 푸른 앵무새. 365개의 색만이 아니다. 춤추는 색종이들이 수만 수억의 사람들로 보인다.

2016년에는 자신만의 빛깔로 화사하게 솟아오르고 싶다. 우리 모두.

글:김선옥(인니 미협회원/땅그랑문화원회화반 강사)



**BNI**  
**BANK NEGARA INDONESIA**  
인도네시아네시아은행

2016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명예회원이 된 BNI 은행

**BNI 은행(Bank Negara Indonesia)  
Wan Andi Aryadi (완 안디 아랴디)  
초대 서울지점장과의 인터뷰**

2015년이 저무는 12월 28일 한인뉴스 황윤홍 편집위원이 인도네시아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 지점을 개설하는 BNI은행 서울지점을 방문했다.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하고 있는 동행은 8층 회의실에서 보면 서울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내달 정식 오픈을 위하여 아늑한 객장과 사무실 그리고 기도실까지 마련되어 고객 맞이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동행의 서울지점 개설을 계기로 재인니 한국기업은 물론 인니 진출을 시도하는 우리기업들은 국내 최대 국영은행인 BNI의 각종 금융서비스 제공과 진출 정보들을 더욱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대 서울지점장 안디 씨는 국제업무통으로 짧은 개설 준비기간임에도 인니와 한국 양국의 경제는 물론 정치와 사회현황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 그의 많은 노력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완 안디 아랴디 지점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Q1. 우선 인도네시아 금융기관 최초인 BNI은행의 한국 진출을 축하합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 교류의 꾸준한 확대에 따라 지난 11월 한국금융당국의 은행 지점설치 허가를 받은 후 그간 준비 작업을 마치고 금년 2월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인니내 한인커뮤니티는 짧은 진출역사에도 불구하고 최대 외국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였고 진출분야도 다양하므로 인도네시아의 경제, 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인니정부 및 은행 관계자들도 한국에 대해 감사한다.

현재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약 4만여명으로 한국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그 점 또한 감사함을 느낀다. 양국정부 발표에 따르면 조만간 양국 무역규모가 1,000억불에 달한것으로 보고 있어 한국에 최초로 진출한 BNI은행의 향후 역할에 기대가 크다. 특히 인니 금융기관 최초의 서울지점 개설에 물심양면 많은 지원을 해주신 주인니한국대사관, 한인회 그리고 한인 상공회의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Q2. BNI은행 서울지점 소개 한다면...**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미 모든 영업 준비를 마치고 정식 개점을 기다리고 있다. 직원은 모두 10명으로, 인도네시아 직원이 5명 그리고 한국직원 5명으로 아직은 소규모이다. 향후 취급 업무는 외환, 대출, 송금, 예금을 비롯한 모든 은행업무가 될 것이다. 우선은 무역업무과 근로자 송금업무를 주로 취급하며 인도네시아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체 대상의 인니 투자 정보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로의 송금업무는 인니 국내은행으로 거의 동시 송금이 이루어지는 Smart Remittance 시스템을 도입하여 많은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서 근무중인 우리 근로자 송금을 위해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Q3. 한국 생활이 처음이라는데 ...**

개설 준비를 위해 수차례 출장을 다녀왔으나 서울 주재는 처음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지난 12월초에 말로만 듣던 첫 함박눈이 펄펄 내렸는데 영원히 기억될 환상적인 풍경이었다. 그리고 서울은 국제 대도시로서 손색없게 영어 소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모두가 너무 친절했다. 지금은 지하철로 출근 중인데 출근시간 풍경도 활기차고 생기에 넘쳐 부러웠다.

그 외로 음식(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물론 금요일 오후 종교 활동을 위한 이태원 마스크트 예배활동 등 우리들의 종교 활동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다. 다행히 나와 부지점장(힌두교)이 각자의 종교활동으로 서로 상이한 근무시간을 보완해주고 있다.

그리고 금번 지점 개설을 위해 무엇보다 감사한 점은 아직 현지 사정에 밝지 않은 우리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주말도 반납한 채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준 한국인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한국인들의 일에 대한 열정에 감탄했다.

**Q4. 국책은행으로 인니 최대은행인 BNI은행의 한인커뮤니티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BNI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지난 1946년에 설립되어 현재 해외 6개 그리고 국내에서 1,800여개의 지점이 영업 중이다.





그간 재인니 한인커뮤니티와 특별한 거래는 없었으나 금번 서울지점 개설을 계기로 한인커뮤니티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 금융서비스 제공과 귀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업무개발을 위해 한층 노력하겠다. 그리고 2016년부터 한인회 정식 법인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인회와 상호 원만한 교류를 통하여 더욱 친밀한 은행으로 다가가겠다.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BNI 서울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WISE TOWER 8층  
전화 82-2-6386-8646  
팩스 82-2-6386-8115/8116



BNI (은행장: Achmad Baiquni) 은행은 1946년 7월 5일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인도네시아 은행으로 1949년 중앙은행 (Bank Indonesia) 설립 전까지 중앙은행역할을 수행하였다. 1955년에 국영상업은행으로 전환 되었고 1996년에는 국영은행 최초로 상장 되어 은행명을 Bank Negara Indonesia (Persero) Tbk로 변경하였다. 동행은 그 후 인도네시아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꾸준히 발전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여 지금은 인니 최대은행으로 금융산업의 선두주자 자리 잡고 있다.

BNI는 현재 전국에 1,826개 지점(출장소)과 직원수 26,878명, ATM 16,07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텔레, 모바일 뱅킹 등 첨단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www.bni.co.id)



2015년 12월10일 BNI은행 서울 지점 관계자(지점장: 완 안디 아라디)들이 한인회를 방문하여 신기업 한인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 신흥국 중심의 10개국, 인구 6억 '아세안공동체' 순항할까?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아시아판 유럽연합(EU)을 지향하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공동체가 지난해 12월 31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세안공동체의 출범이 상징적, 선언적 성격이 강해 실질적인 통합에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한다고 해서 곧바로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회원국들이 그동안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부문별 통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지만 단일화된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며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돼 있지 않다. 우리 기업들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AEC를 활용을 위한 구체적 역내 관세 인하·철폐 수준과 계획, 사회기반시설 건설 계획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아세안공동체 출범은 1967년 지역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창설된 지 48년 만에, 2003년 아세안공동체 설립 추진에 합의한 지 12년 만이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공동체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축으로 이뤄져 있고, 이들을 통합한 아세안공동체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아세안 통합의 핵심은 단일 경제권을 표방하는 AEC의 등장이다.

2014년 기준, 아세안 총 인구는 6억3천만 명으로 세계 3위, 총 국내총생산(GDP)이 2조7천억 달러, 1인당 GDP 4천 달러로 세계 7위 경제권이며 평균 연령이 29세로 젊고 중산층이 증가하는 점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다.



#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출범으로 아세안은 전자와 자동차 등 다양한 제조업의 단일 생산기지이자 식품, 전자제품, 의약품, 건강용품 등의 거대한 단일 소비시장이 될 전망이다. 또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육상·해상 인프라 개발과 산업 현대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도 많아지게 된다.

AEC는 단일 시장과 생산기반 구축, 경쟁력 있는 경제블록, 균형 있는 경제 발전, 세계 경제와의 통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목표 아래 아세안은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숙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역내 교역·교류 장벽을 없애는 작업을 해왔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민감 품목을 제외한 역내 평균 관세율을 사실상 0% 가까운 수준으로 낮췄다. 단일 시장을 통해 각국의 장점을 융합,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연간 총 1억8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베트남 휴대전화 공장 2개를 아세안은 물론 세계시장을 위한 공급기지로 삼아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 헝가리 등에 흩어져 있는 휴대전화 생산공장을 베트남으로 통합할 계획을 세우는 등 외국 기업들의 잇따른 발길로 아세안이 중국의 '세계의 공장' 지위를 넘보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아세안 회원국들에 부품 공급 사슬을 구축해 단일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역내 분업화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생산하는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끼장' (Kijang)이 대표 사례다.

엔진은 인도네시아에서, 몸체는 태국에서, 변속기는 필리핀에서 각각 만들어 조립한 완성차를 인도네시아와 일본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레 르영 밍 아세안 사무총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공동체 출범은 40여년에 걸쳐 회원국들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 안정, 안보를 유지하고 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쌓아온 노력의 결정체”라고 아세안공동체 출범의 의미를 설명했다. “시작은 작았지만 모든 회원국들이 결집된 의지와 신뢰를 통해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 책임감을 가진 공동체를 건설하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밍 총장은 이어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육상·해상 인프라 개발과 산업 현대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에도 참여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세안 공동체 출범은 세계 경제와 정치·안보 지형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입지를 다지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회원국 상당수가 저개발국으로 안보와 경제가 취약하고 일부는 정치마저 불안한 상황에서 10개 회원국을 통합, 성장을 극대화하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안보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 전선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협력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세안공동체가 출범했지만 회원국 간 제도적, 문화적 이질성은 물론 경제 격차가 크고 자국 산업 피

해를 막기 위한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히 실질적인 경제 통합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아세안 정상들은 역내 통합의 동력을 유지하도록 앞으로 10년간의 실행 구상을 담은 '아세안공동체 비전 2025'를 채택했다.

EU와 비교하면 명확히 드러난다. EU는 회원국들의 조약으로 출범해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 유럽중앙은행 등 통합의 구심점과 운영 기구를 두고 있다. 단일 통화도 쓰고 있다. 반면 아세안공동체는 이런 것 없이 회원국들의 합의로만 이뤄졌다. 단일 통화를 도입할 계획도 없다. 외교장관 회의를 비롯한 각 분야 장관급 회의, 정상회의 등을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절, 공동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강제력과 신속한 정책 집행,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재난, 부패에 대해서는 각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정도다.

아세안이 경제 통합과 구조 개혁을 제대로 하면 2030년까지 연평균 6.4%의 고성장을 하며 GDP를 지금의 2배가 넘는 6조6천억 달러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이다. 하지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역내 관세의 인하·폐지에도 보호주의 무역의 대표적인 방식인 각종 검사와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견고하다. 역내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이동도 속련 이동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도 과제다.

아세안 내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낮아 생산성이 떨어지고 도로, 전기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아세안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나 최근 임금이 상승하고, 노동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저임금의 매력도 차츰 약해지고 있다. 단일 시장을 표방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선발 6개국에서만 상품에 대해 제로 관세가 실현됐을 뿐 나머지 국가들에는 관세가 남아

있다. 비관세 장벽은 아세안 전반에 걸쳐 아직 높은 편이며 서비스,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도 달성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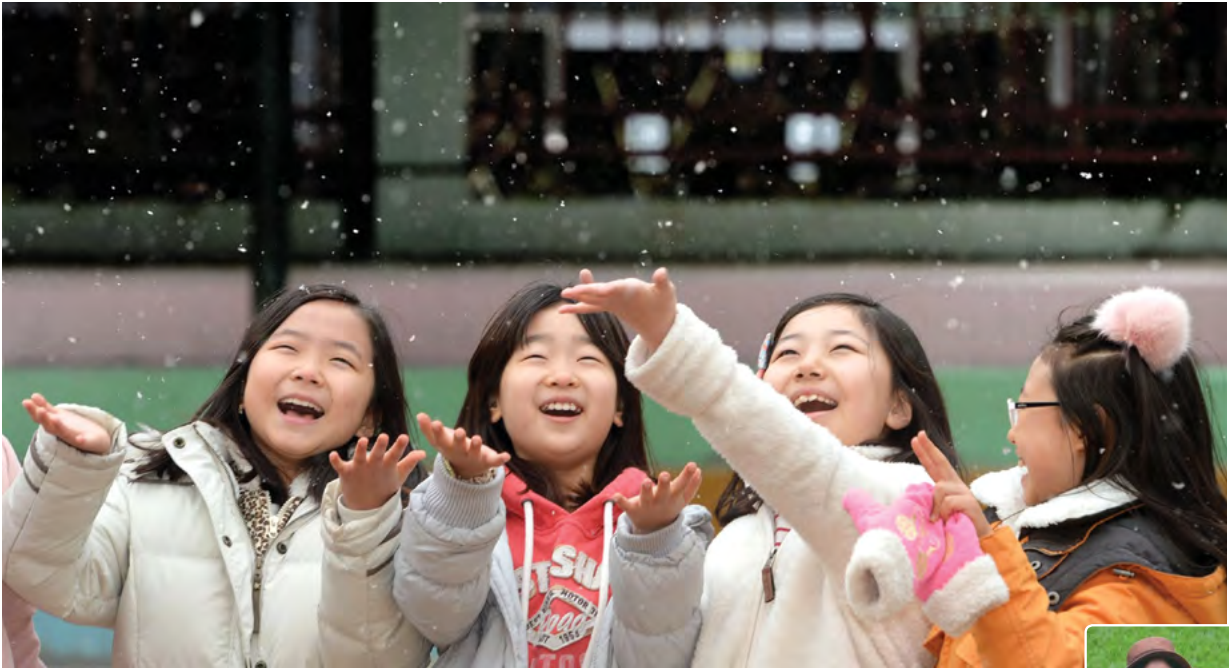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가 크고 대부분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점도 실질적인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오히려 무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경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1인당 GDP가 브루나이는 5만6천달러, 미얀마가 1천200달러로 46배 차이난다. 사회기반시설 수준도 마찬가지다. 아세안 공동체 회원국들의 역내 교역 비중이 약 24%로, EU의 약 60%보다 작아 공동체 출범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교류 확대를 위한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인력 이동 역시 의료, 회계 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로 제한하는 등 사회 통합의 장벽도 여전히 있다.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태를 놓고 회원국 간의 갈등을 표출한 데서 보듯이 참여한 이해관계가 엷힌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다.

2014년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1천38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 상대국이다. 또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투자 대상국이다. 작년 투자액은 신고액 기준 50억 달러로 미국(91억 달러) 다음으로 많다.

아세안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한·중·일의 경쟁 또한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5개국의 10대 수입 품목 가운데 9개 품목에서 한·중·일이 겹치고 중국이 아세안 내 화교세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3국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세안 내 일부 국가에서 시장경제 체제와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해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정치, 사회 불안이 조성되는 등 정치적, 제도적 위험이 적지 않은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 연합뉴스/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새롭게 행복을 가꾸는 한해로..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새롭게 시작되는 2016년 새해에는 무슨 일 이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행복한 한인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서든 행복에너지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공간에 긍정의 마법을 걸어놓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인생을 살다보면 새로운 마음가짐이 때로는 눈부신 울림을 만드는 기적을 가져다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가만히 귀를 열어보니 산새들이 지저귀고 물이 흐르고 태양이 비추인다. 나는 한 아름의 들꽃을 가득안고 밝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꿈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지나간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았다. 새해를 앞두고 모처럼 꾸었던 꿈치곤 그럭저럭 괜찮은 꿈이었다. 꿈속에서 밝게 웃고 있던 기억이 새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는 것만 같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아파트 주변은 자카르타에서도 꽤 오래되고 고즈넉한 주택가이다. 그래서 인

지 세련된 현대식 건물의 큼지막한 집들은 커다란 정원이 즐비하고 파티문화를 즐기는 인도네시아 부유층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다.

지난 크리스마스쯤인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폭죽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환호성과 축제소리로 요란했다. 새해가 다가오자 잠시 잠잠해지다가 싶더니 어젯밤은 또 다시 정적을 깨고 아파트 긴 창 너머로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며칠 밤이나 잠을 설친 탓도 있었지만 웬일인지 어제는 컷가에 소음들이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자리에 든 것 같다. 신기하게도 나만의 긍정마법이 통했나보다. 새해의 운을 좋게 가지려면 우선 스스로 긍정하고 밝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어찌면 이것이 자신만의 행복을 가꾸는 기본 원칙인지도 모를 일이지...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도 정감어린 풍경화처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해에는

우리 마음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안겨주는 그런 빛나는 날들로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 바쁘게 사느라 지쳐있는 마음에 무지개 같은 썬더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가령, 하늘의 별을 자주 바라보기, 내 마음을 가만히 노크하며 토닥여주기, 초록 숲을 바라보며 자주 눈의 피로를 풀어주기, 그리고 끊임없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잃지 않기 등, 생각해보면 이런 소소한 마음의 위안이 어찌면 우리 인생에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모를 일이다. 자신만의 꿈과 희망이 자라고 있는 행복 나무를 매일 점검하고 새롭게 물을 주고 듬뿍 사랑을 안겨주자.

자신이든 주변이든 사랑이 주는 시너지 효과는 정말로 대단한 것 일 테니까...

요즘은 온 나라 안팎이 경제적으로 불황인가보다. 한국에 있는 친구는 메신저를 통해 새해 인사를 나누며 백화점을 가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 연말연시 분위기를 별로 못 느낀다고 한다. 이곳 자카르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가 세계적인 불황의 그늘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집 밖을 한 발짝만 나가도 돈이 필요하고 모든 영역에 돈이 든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공짜는 분명히 존재한다.

함 찾아보자, 공짜로 맞는 사랑살랑한 바람, 공짜로 바라볼 수 있는 에메랄드빛 하늘, 공짜로 쬐는 햇볕, 붉은빛 노을, 모두가 황홀하게도 공짜이다. 새해에는 이 공짜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서 우리 마음 안에 행복의 숲으로 가득 채워보자.

인생에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상상력과 인생을 살아가는 참다운 용기 그리고 약간의 돈이 필요할 뿐이다. 돈은 어디까지나 살아가는 수단 일뿐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영혼이 부자인 것이 물질적 부자보다 더 소중 하다고...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평화롭고 마음이 부자이면 행복한 삶은 멀리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상상력인 것 같다.

나눔과 감사,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지

혜, 만약 그것만 갖춘다 해도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얼마 전, 선배언니 집을 방문했다. 거실에 들어서니 장미 백 송이에 안개꽃을 듬뿍 넣은 커다란 꽃바구니가 눈에 띄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낸 거유? 너무 부럽네...”

“궁금하면 거기 꽃혀있는 메모지 읽어봐.”

메모지에는 언제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당신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아휴, 아직도 신혼이신가 보네, 낭군님께서 새해에 이렇게 꽃도 보내시고...”

그러나 선배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새해도 되었고, 나이도 한 살 더 먹으니 괜히 우울해져서 내가 나 자신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면 어떨까 생각했어.” 그래서 근처 꽃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사서 집주소를 적어 자신에게 배달을 부탁했단다. 그랬더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졌다고 선배는 말했다. 환한 꽃바구니가 선배를 향하여 방긋 웃으며 한 해 동안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항상 가족과 주변은 다정하게 챙기면서도 정작 소중한 자신에게 소홀했다는 생각에 멈추니 현명한 선배에게 인생의 지혜를 한 수 배운 느낌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다. 자신에게 삶의 에너지를 주기 위해 매일 잠을 내어 신발을 벗어던진 채로 자신을 위한 춤을 춘다고...

불현 듯 ‘꾸삐씨의 행복여행’에서 마지막 네 가지 글귀가 머리에 떠오른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불행하지도 않으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복카드를 보내고 싶다. 새해에는 더욱 더 열심히 자신만의 행복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인뉴스 독자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인도네시아 민법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mailto: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 1. 민법이란 무엇인가?

민법은 사인(개인)과 사법인 등 사적인 법률주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다. 사인과 사법인 간의 법률관계는 친족, 혼인, 상속 관계와 거래관계가 그 중요 내용을 이루며, 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개인 과 사법인의 의무와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인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삼으며, 자유와 평등의 이념의 표현으로 사적인 소유권 보장 원칙, 사적인 자치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을 민법의 3대 원칙으로 보아 왔으나, 사적 재산권의 절대 자치로 인한 공익의 침해 및 경제적인 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적인 자치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2. 인도네시아 민법전 역사

대한민국 민법전은 독일 민법전의 편별식에 따라,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및 부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 민법전은 로마법적 편별법을 따라 제1권은 사람에 관하여, 제2권은 물건에 관하여, 제3권은 계약에 관하여, 제4권은 증명과 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강점기 일본강점자가 일본 민법을 의용하였지만,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시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네덜란드의 민법전을 따라 로마법적 편별식으로 만들었다. 한국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 공포되고,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자,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법전이 1954년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되고, 많은 수정을 거쳐 1957년 국회에서 승인을 받고, 1958



년 2월 22일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나,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847년 4월 30일 공포하고, 1848년 5월 1일부터 발효된 민법전을 2016년 1월 1일 현재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다.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공포해서 발효된지 168년이 지났고,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포한지 71년이 지났는데도,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네덜란드어로 된 민법전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만 해서 그대로 쓰고 있다. 민법전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통치자가 제정한 민사소송법도 그대로 쓰고 있다. 한국인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인도네시아인이 많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현실이다.

## 2. 네덜란드 통치시 주민의 출신별로 구분하여 민법을 시행

네덜란드 통치시에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주민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민법을 시행했다.

### 2.1. 원주민(Bumiputera)

관습법(Hukum Adat)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백의 부족이 자신들 고유의 관습법을 시행했으며, 식민통치자가 1933년에 공포한 인도네시아인 기독교신자의 결혼에 관한 법령, 1939년 공포한 인도네시아 회사에 관한 법령, 1939년 공포한 인도네시아 단체에 관한 법령이 있었다.

### 2.2. 유럽계 주민

네덜란드인이 중심인 유럽계 주민은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민법(Burgerlijk Wetboek)과 상법전(Wetboek van Koophandel)을 시행했다.

### 2.3. 중화계 주민

중화계는 호적, 혼인 및 입양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민법 및 상법을 시행했다.

### 2.4. 유럽계 주민 혹은 중화계 주민이 아닌 아시아계 주민

유럽계도 아니고 중화계도 아닌 아랍계, 인디아계, 파키스탄계 및 이집트계 주민은, 재산법, 상속법, 개인법은 민법과 상법을 시행하고, 가족법은 각각의 출신지 자국법을 시행했다.

## 3. 네덜란드 통치시 자발적으로 민법 및 상법을 시행한 주민

네덜란드 통치시 인도네시아 원주민 및 아시아계 외국인(중화계를 제외한) 중에, 유럽계 주민과 같은 규정에 묶여있지 않은 주민은 자발적으로 민법 및 상법 시행을 허용한 일부 주민들이 있었다. 민법 및 상법 전체를 자발적으로 시행한 그룹, 민법과 상법의 재산법과 상속법 부분만 자발적으로 시행한 그룹, 특정 법률행위에 관해서만 민법과 상법을 자발적으로 시행한 그룹, 원주민의 관습법에는 없는 특정 법률행위를 시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법과 상법에 시행한 원주민 그룹이 있었다.

## 4. 사람에 관한 법(Hukum Perorangan)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 즉, 법률행위를 하는 법률주체를 뜻한다.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이며, 이것을 행하는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가진 자이며, 목적, 즉, 내용이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보나, 예외로 태아는 태안에서 생긴 순간부터 권리 의무의 주체로 본다.

민법 제2조 (1)항에 규정한 권리와 의무 주체로써 태아는 i). 부모의 대리권, ii). 유산 상속, iii).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복종, iv). 증여 수령 등의 사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태아가 신생아로 태어나지 못하면 태아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나, 산 사람으로 태어나서 단 1초라도 살았다면 권리의무의 주체, 즉, 법률주체가 된다.

#### 4.1.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는 법률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민법 제 330조에서는 21세 미만자는 미성년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21세 미만자일지라도 남자는 18세 이상으로 결혼한 사람을 성인으로 간주하고, 여자는 15세 이상자의로 결혼한 사람을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혼인법에서는 혼인을 허용하는 연령을 남자는 최소 19세, 여자는 최소 16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법에서는 18세 미만자의 유언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선거법에서는 17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있다.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지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금치산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민법 제 108조에 기혼 여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남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63년 대법원 회람 규정 제3호에서 민법 제 108조 실효를 규정했으며, 1974년 혼인법 제 31조에 남편과 부인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상대 배우자의 동의하에서만 재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 4.2. 성인 간주 청구

미성년자가 특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정 법률행위를 하기 위하여 성인 간주 청구는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허용하며, 모든 법률행위를 위한 성인 간주 청구는 만 20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허용한다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법에 결혼 연령을 18세로 낮추어서 민법 제 420조, 421조, 426조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 4.3. 금치산자

정신장애자. 정신착란증 환자. 낭비자에 대하여 직계존비속이 법원에 법률행위를 금하는 판결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로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금치산선고자라고 한다. 배우자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도박중독자,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가 자신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공익을 위해 정신착란증 환자, 지적장애자 및 기억상실증 환자에 대하여 검찰이 금치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금치산자는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와 같으며, 금치산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원인 무효에 해당된다.

#### 4.4. 법인

자연인 이외에 일정한 조직을 가진 사람의 집단(사단) 혹은 독립의 목적재산(재단)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권리능력)이 부여된 것, 즉, 자연인에게 주어진 생물학적인 권리와 의무 이외의 다른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법적주체를 법인이라고 한다.

법인 설립 조건은

- i) 사유 재산과 분리된 독립재산이 있어야 한다.
- ii) 특정한 설립 목적이 있어야 한다.
- iii) 특정인들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 iv) 조직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

법인 설립 절차는

- i) 공정증서 정관으로 설립한다.
- ii) 관할 동사무소에서 소재증명서를 받는다.
- iii)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 등록증을 받는다.
- iv)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한다.
- v) 법인 명의를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금을 법인계좌에 불입한다.
- vi) 법무부로부터 법인자격을 받는다.
- vii) 법인자격을 관보에 공보한다.

법인을 규정한 법률은

- i) 주식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
- ii) 조합법인에 관한 2012년 법률 제17호,
- iii) 은행법인에 관한 1998년 법률 제10호,
- iv) 재단법인에 관한 2001년 법률 제16호,
- v) 사회단체에 관한 법률 2013년 제17호가 있다.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구분한다.

- i) 공법인은 인도네시아 국가, 지방자치단체(주, 시, 군, 구, 동), 중앙은행, 국영기업체, 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이며,
- ii) 사법인은 주식회사, 조합, 정당, 재단법인, 사회단체 등이 있다. 상법에서 규정한 Firma와 Persekutuan Komandi-tur(CV)는 법인이라는 학설과 비법인이라는 학설로 나뉘어 있으며, 필자는 Firma와 CV는 재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비법인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 4.5. 법적 주소지

민법 제17조 1항은 각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는 주소지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법적으로 말하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장소라는 뜻이며, 법적 주소지는 아주 중요하다.

- i) 결혼 예정자는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를 관할하는 민사등기사무소에 결혼 예정을 통보해야 한다.
- ii) 신랑 혹은 신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사등기사무소에 혼인등기를 해야 한다.
- iii) 이혼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청구한다. 피고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청구하며, 피고의 주소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한다.
- iv)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상술한 iii)항과 같으며, 피고가 복수인 경우에는 피고 중 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청구한다.
- v) 투표권도 법적 주소지에서 행사한다.
- vi) 물건 혹은 서비스의 댓가는 공급자/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불 의무가 있으며, 다음 순위는 매입자/사용자/채무자의 주소지이다.

법적 주소지는

- i) 실제 주소지와
- ii) 선택 주소지로 구분한다
  - i) 실제 주소지는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를 의미하며
  - ii) 선택 주소지는 특정 법률행위를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가 정한 주소지를 선택 주소지라고 한다. 분쟁해결을 위한 장소로 법원을 선택하거나 상사중재원을 선택한 경우, 소송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법적주소지로 선택하는 경우이다. 망자의 법적주소지는 망자의 생시 최종 주소를 망자의 법적주소지로 보며, 상속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호에 계속)



## 크지만 작은 여행지, 따만미니 전통가옥관

최조은(자카르타 거주)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다. 비는 오지 않았다. 소풍가는 아이마냥 마음 졸이던 날씨는 딱 좋았다. 낯설고 엄청난 규모라는 이야기에 선뜻 갈 엄두를 못낸 장소였다. 아이들 방학이라 도로는 막히지 않았고 금방 따만미니 모임장소에 도착했다. 오늘도 새로운 분들과 만남으로 시작을 하였다.

따만미니는 전통 가옥들 뿐만 아니라 새파크, 선인장파크, 스노우베이 등 각종 테마파크와 각종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식이름은 따만미니 인도네시아 인다이다. 아름다운 인도네시아를 널리 알리고자 섬나라 인도네시아 영토를 본 딴 인공섬 호수, 다양한 부족의 전통과 문화역사 체험, 그리고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 가옥들은 어떤 모습들일까? 난 헤리티지 선생님들의 재밌고 풍부한 해설로 인도네시아의 색다른 여행에 쏙 빠져들게 되었다.

수마트라 잠비 가옥의 외관을 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하여 아침 9시부터 3시간동안 총 11개의 전통가옥관을 접하게 되었다. 수마트라 섬은 세계에서 6번째 큰 섬으로 금과 같은 자원이 풍부한 섬이다. 남부 수마트라의 집은 3개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다. 필로티공법처럼 기둥으로 이루어진 1층, 사람들이 주거하는 2층, 그리고 커다란 지붕으로 나뉘어 진다. 수마트라인들은 기둥이 있는 공간에는 동물이, 방이 있는 2층은 사람이 그리고 지붕에는 신이 산다고 생각한다. 자연과 신이 공존하는 수마트라인들의 삶이 잘 보여지는 부분이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정교한 조각에 화려한 금칠로 꾸며진 집안내부 장식들, 가구 그리고 금실 자수로 수놓은 옷들을 볼 수가 있었다.

미낭까바우 부족이 사는 서부수마트라 집은 중요한 강가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거대한 물소 때를 보는 것 같다. 정적이 감도는 고요함 속에서 솟

아오르는 지붕이 돌진하는 소를 보는 듯 묘한 느낌이다. 양끝이 솟아오르게 만든 지붕은 야자뿌리로 만들고 수명이 50년이 된다. 야성미가 느껴지는 외부와 달리 집안 내부는 여성스럽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벽, 천장 어디를 찍어도 사진이 예쁘게 나왔다. 미낭까바우 부족은 모계중심사회이다. 루마가당이라는 큰 집에서는 여자들이 살고 남자 아이들은 집 대신 무솔라(기도당)에서 기거한다. 남자들은 성년이 되면 타 지역에서 음식점을 차려 돈을 벌어들인다. 그 돈으로 결혼도 한다. 승리한 물소를 상징하는 미낭까바우, 며칠 굶긴 어린 물소를 싸움에 내보내 커다란 큰 소를 이긴 영리함과 남성들의 생활력이 돋보이는 부족이었다.

오랑우탄이 살고 있다는 보루네오 섬 안, 칼리만탄 지역의 집은 무척 길었다. 실제로는 더 긴 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름도 롱하우스이다. 이층으로 올라가면 각 방마다 가족 또는 부족의 문양이 문 위에 그려져 있다. 문 앞에서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공동구역이 있고 집 옆으로 커다란 원형형태의 집이 있는데 이는 죽은 사람들을 모시는 곳이다. 이 지역은 적의 침략이 많아서 많은 가족과 부족이 모여 살아야 해서 긴 집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칼리만탄은 오징어문양의 그림이 많은데 오징어의 의미는 다리가 여러 개이지만 몸통이 하나로 우리는 여러 부족이지만 하나라는 의미가 있다. 칼리만탄 티무르 집에 한쪽 벽면을 오징어 문양의 부조벽화로 꾸며 놓았다. 사진을 찍으면 실제 보는 것과 달리 멋있게 나와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다. 벽 뿐만 아니라 기둥에 조각되어 있는 오징어문양들도 독특하다. 놓치지 않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인도네시아 중에 가장 독특한 색을 띠는 파푸아, 파푸아는 내가 아는 지금까지의 인도네시아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볼 듯한 문화가 있다. 일부다처제였던 파푸아의 가족은 가장 큰 가정의 집을 중심으로 부인들의 집이 있고 부엌을 같이 사용했다. 돼지를 귀하게 여겨 부

인들은 각자의 돼지들을 아이들과 함께 길렀다고 한다. 부인집은 2층 구조로 1층에서 돼지와 아이들이 기거하고 2층은 부인이 기거했다. 지역이 고산지대라 난방시설이 집안에 있었고 사람들은 목욕을 전혀 하지 않고 돼지기름을 매일 발라 추위를 이겨냈다. 파푸아관에서는 기다란 나무에 사람들을 조각해서 길게 세워둔 조각 ‘음비스폴’을 볼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그 나무를 조각해 마을 입구에 세워두는 것으로 적의 저주로부터 지켜준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 파푸아는 전쟁 중 남성 가족이 죽으면 여자들은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절단한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 식인문화가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술라웨시 지역의 집을 보았다. 또라자하면 커피와 독특한 장례문화가 떠오른다. 술라웨시의 집 똥꼬난은 배를 얹어놓은 듯한 거대한 지붕이 있다. 지붕의 두께도 다른 지역과 달리 엄청 두꺼워 보여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까 싶다. 집 관리는 가족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여자에 의해 관리된다. 그들은 북쪽에서 배를 타고 내려왔기에 북쪽을 중요시 하고 집 앞을 항상 북쪽을 향하게 한다. 집 앞 중심기둥에는 장례식 때 사용했던 많은 수의 물소 뿔로 장식해 놓는다. 그리고 집 앞에는 작은 규모의 곡식창고가 있다. 술라웨시인들은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돈을 모을 때까지 집에서 죽은 사람과 같이 산다. 죽은 사람은 성대한 장례식 후에 집 옆 절벽 동굴에 묻힌다.

아쉽지만 오늘의 여행은 똥꼬난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나오면서 다른 지역의 집들도 더 보고 싶었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이번 탐방 체험으로 따만미니는 인도네시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크지만 작은 여행지’로 변해버렸다. 헤리티지 탐방마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기쁘고, 좋은 장소를 만나서 기쁘다. 이 글을 통해 탐방마다 항상 따스하게 인솔해주시는 회장님과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신 김상태, 서은숙선생님께 감사 말씀을 올리며 글을 맺는다.



## 그에게는 항상 향기가 난다 동양과 서양이 함께 춤추는 도자기 센터에서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서 정주의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라는 시 구절이 어울리는 온통 초록의 정원 사이에 나비, 벌, 오리, 개구리, 도마뱀이 재잘거리면서 나를 반겨주었다. 부드러움과 예술성으로 방문객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초록의 숲에는 나비와 벌이 나보다 먼저 초록의 속살을 만지고 있었다. 나무로 된 문(Regol)을 통해 들어가면 나오는 겔러리와 Pendopo로 가는 작은 길에서 나를 부르는 향긋한 Sedab Malam과 파피루스의 향기에 취해 있을 때 그가 머리에 꽃을 꽂아 주었다. 향기가 났다. 이렇게 Widayanto 선생님과 인연이 시작되었다. 1998년 개관한 자카르타 교외(Depok)의 푸른 언덕에 위치한 도자기센터(Rumah Tanah Baru)에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도예가인 위다안토(F.M Widayanto)의 작품들이 예술적이면서도 실용적으로 사용하도록

꾸며져 있다. 나비와 벌이 날아다니는 안채의 벽화에서 사랑의 물결을 본다. 자유의 물결을 본다. 잠시 몽상에 이끌리어 컬렉션을 응시한다. 그의 컬렉션은 집의 인테리어와 외면까지도 격조 있게 만든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온 민속적인 수공예품, 골동 램프와 가구, 전통적인 직물과 조각품들, 그리고 가톨릭 신자인 그가 좋아하는 마리아상도 보인다. 큰 도자기 작품에서 회화까지 작가의 작품과 개인 소장품으로 장식되어있다. 도자기 작품은 벽과 바닥 타일, 욕실, 정원, 하수구, 전기스위치 장식 등 구석구석에서 발견된다. 또 정원에 있는 몇 채의 전통 오두막에서도 푸르름을 즐기면서 마음껏 인도네시아를 느낄 수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사람과 자연, 동물과 식물이 어우러져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꾼다. 그래서 자신의 도자기 모티브가 자연, 동물이라고 말한다. 동

양의 상징인 물가에 있는 개구리나 거북이, 인니의 상징이기도 한 도마뱀(cecak),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소, 와양극에 많이 등장하는 스마르(Semar)나 모자(母子)상 등이 익살스럽게 때로는 심술궂게 형상화되어 있다. 그는 인생을 형이상학적으로 살기 때문에 작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역동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작품은 젊은이들도 쉽게 도자기에 다가가도록 꽤서너블하게 표현했다고 한다. Setiabudi에 있는 Galeri F. Widayanto는 부모님이 살았던 곳으로 1990년에 도자기 갤러리로 오픈했다. 대형 작업장이 있는 보고르 Tapos에 있는 Keramik Village도 1990년에 오픈했다.

위다얀또는 1953년 자카르타에서 태어나 1981년 반둥공과대학(ITB: Institut Teknologi Bandung)의 미술대학 도자기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주로 가난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 대한 연민, 인간적인 면, 삶을 표현한 아판디(Affandi)로부터 영감을 받아 유난히 꽃 그림을 많이 그렸고, 아판디를 반 고흐 이후 자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한다. 그는 획일적인 가치나 고정관념에서 끊임없



이 벗어나 자유롭고 싶어 했다. 그는 도자기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독신주의자가 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에너지를 도자기에만 쏟고 싶



었다고. 자신의 작품 속의 Dewi Sri를, 신화 속의 여인 Drupadi를 사랑했노라고. 별처럼 열심히 도자기만 구웠노라고. 그리고 작품을 완성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아름다움을 보았노라고. 그래서인가 그의 작품에는 벌과 나비가 따라 다닌다.

그의 전시회에 갔다. 흠내음이 났다. 오직 도자기 밖에 모르는 남자에게서 나는 향기. 아~ 그때의 향기가 꽃향기가 아니라 흙 향기였구나. 1987년 「Wadah Air(물 담는 용기)」라는 타이틀로 첫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단독 전시회를 20여 차례나 가졌고, 전시회 때마다 항상 한 가지 주제로 전시를 한다. 전시회에 출품하는 작품은 주로 대작으로 길이가 200cm, 높이가 150cm 넘는 작품이 많다. 싱가포르, 미국, 프랑스 등에서도 전시회를 가졌다. 그는 전통예술에 애착이 강한 예술가로 전통예술을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다. 예술은 닫힌 공간이나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와 조화롭게 재창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신화와 전설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었다. 신화와 전설은 그를 초현실주의에 빠져들게 했고 잠잘 때 들려주는 동화였다.

이러하면 2003년 국립갤러리에서 「Dewi Sri(식물의 여신)」라는 타이틀로 열린 11회 단독 전시회 때 그는 6개월 동안 자신이 키운 벼가 있는 논을 전시장으로 가져왔다. 논, 밭에서 그대로 굳어버린 Dewi Sri가 자비심이 많은 여인의 모습으로 줄지어 서 있었다. 삶과 비옥의 여신인 쓰리(Dewi Sri)는 신들이 천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죽인 비운의 여신이기도 하다. 여신이 죽은 후 그



녀 몸의 각 부분은 식물로 된다. 오른 쪽 눈은 하얀 벼(Padi Putih)가 되고 왼쪽 눈은 빨간 벼(Padi Merah)가 되었다. 머리는 야자나무, 눈·입술·귀는 풀과 야채로, 가슴은 과일이 된다. 존경하는 그녀의 모습을 자바의 논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는 성실과 변영의 상징인 쓰리를 현대의 모습으로 재창조하였다.

찌르본(Cirebon)의 와양 골렉(Wayang Golek)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었다. 1997년에 개최한 7회 단독 전시회 「Golekan」에서도 그는 이러한 전통 문화유산이 현대에 와서 어떻게 재창조되는가를 보여준다. 1990년에 열린 자바의 아름다운 신랑신부 「LoroBlonyo」를 주제로 한 전시회나 2007년 국립박물관에서 가진 「Narcissus·Narcissus」라는 제목의 나르시스와 자화상을 많이 출품한 목탄 드로잉 전시회(2000년)에서는 그의 더께 긴 고독한 그림자의 두께를 알 수 있었다. 스케치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했다. 2003년 19회 전시회는 「Drupadi Pandawa Diva」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인도 신화 “마하바라타(Mahabarata)”는 자바의 와양극 소재로 많이 등장한다. Drupadi는 신화 마하바라타에 등장하는 강하고도 순결한 자바 여인을 상징한다. Drupadi는 남편의 도박 빚으로 도박판에 머리채 끌려간다. 작품의 모티브로 풀린 머리, 분노하는



Drupadi, 도박을 상징하는 굴러다니는 주사위, 계속 흘러내리는 끔번(kemben, 윗 속옷). 그러나 끝내 벗겨지지 않는 끔번이 여러 형태로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다양한 색의 유약(주로 시원한 파란색과 초록색, 따뜻한 갈색 같은 자연 색깔)에 찰흙을 사용하여 동물 및 식물 모양의 장식으로 작품을 창조해 낸다. 이 도자기 인형들은 곡선미를 드러내는 현대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맞이한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길 바라며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냥 느끼고 즐기라고 그는 말한다. 모자(母子)상이나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항



상 유머러스한 모습의 스마르도 그가 좋아하는 소재인데 따뜻해 보이고 인간적이다.

도자기센터 견학의 하이라이트는 도자기-찰흙 체험이다. 자신의 창조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서 열정적인 방문객은 찰흙을 만지는 경험을 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숨겨진 타고난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흙을 비교하고, 도자기의 모티브도 비교하면서 도자기가 살아 숨 쉬는 생명체임을 느껴본다. 도자기센터를 더 자세히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이드 투어도 있다. 여행의 또 다른 하이라이

트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각 지방의 전통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점심식사이다.

이곳에서 맨발로 풀밭을 걷노라면, 저 숲 속에서 누군가가 내 향기로운 잠을 아득히 불러내고 있는 듯하다. 이곳에서 내가 느꼈던 아름다움을 누군가 시간을 달리해 공유하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 이런 것이 여행의 매력이 아닐까. 즐겨라. 눈부신 아름다움을. 그리하여 지루하고 단조로운 생활에 파문이 일어나길……면 훗날, 자카르타를 떠나는 날 그에게 고백하리라. 당신에게는 항상 흙향기가 났었다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당신과 나와서 우정처럼 흙 빛깔의 언어로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Tapos Ceramic Village에 도자기로 만든 풍경 하나 처마 끝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다. 흙 빛깔의 눈빛이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 Tapos를 내려오면서 나는 바람이 날아다 주는 흙향기 때문에 두 팔을 오므려 손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 Rumah Model Keramik & Wisata Keramik F. Widayanto

JL. Curug Agung No. 1  
Tanah Baru, Beji, Depok  
(021) 7757685, 7757686  
개관 08:00-16:00 / 도자기  
실습 09:00-15:00



□ Galeri F.Widayanto  
Kantor Pusat & Ruang Peraga

Jl. Setiabudi II No. 11  
(021)5253891, 5262309  
개관 09:00-17:00

□ Keramic Village di Bogor

#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여기 저기 SNS를 뒤적거리다 충격적인 기사를 읽게 되었다. 요즘 학생의 60% 이상이 10억원이 생긴다면 1년정도 감옥에 가 있는 걸 개의치 않아하며 또 범죄행위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60%라는 숫자면 과반이 넘는다. 그 만큼 세상의 잣대가 변한 것 같다. 도덕이나 윤리보다는 물질에 가치를 두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목적하지 않았던 행위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월 21일을 ‘허그 데이’로 지정하여 서로 안아주는 날이라고 한다. 누군가를 껴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서로의 볼을 비비거나 안아준다. CIPIKA-CIPIKI(찌삐까 찌삐끼)라고 하는데 CIUM PIPI KANAN DAN CIUM PIPI KIRI를 줄인 말로 오른쪽, 왼쪽 볼에 뽀뽀하기라고 한다. 이번 연말에는 인도네시아인들처럼 CIPIKA-CIPIKI는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서로의 온기를 나눠 힘찬 201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건 어떨까?

새 일일드라마 ‘우리집 꿀단지’

## Tadi kita impas

우리 서로 비긴 거죠?

오봄은 풍길당에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상한 막걸리를 골라내 팀장인 태호를 도와주고 봄이가 두근한 핸드폰을 태호가 챙겨 찾아주면서 전에 저 도와준 것 이걸로 ‘우리 서로 비긴거죠?’ (보상하다. 갚다) 라고 한다.

비기다 : (서로 변상하고 보상하여) 줄 것과 받을 것을 서로 없는 것으로 치다(상쇄하다).

보상하다, 변제하다, 갚다, 지불하다, 처리하다 라는 뜻은

## Lunas , Impas, Bayar, Beres

Impas와 같이 ~을 보상하다, 갚다, 처리하다 라는 뜻의 단어를 문장에 따라 구분지어 봤습니다.

1. **Lunas**: ~의 의무를 다하다. ( 빚 등을 지불하다. 갚다 ) 완납하다, 청산하다, 일이 잘 이행되었다(잘 되다) 의 뜻으로 주로 빚 등 자금을 관련된 것을 청산하다 완불하였을 때 사용된다.

[Beres dan selesai dibayar (tentang utang); terbayar; impas (KBBI) (Suatu keadaan dimana kita sudah membayar penuh semua hal yang harus dibayarkan)]

Melunasi : membayar hutang hingga lunas (KBBI) 빚을 지불해서 변제하다.

a. Aku sudah *melunasi* hutang Almarhum ayahku.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청산하였다.( 모두 갚았다)

b. Aku sudah *membayar* semua uang yang kupinjam. Berarti hutangku lunas.

빌린 돈을 모두 지불했어요. 빚을 변제한거죠. (청산하다. 완불하다.)

2. **Impas**: 변제하다. 수지 균형을 이루다, 손실이 없이 뽕뽕 또는 상쇄 되었다 의 뜻 으로 보통 손익분기점을 표현하는 경우 Titik impas 라고 한다.

[Sama besar pendapatan dengan modal, tanpa laba; pulang pokok; (KBBI) (Suatu keadaan dimana kita tidak memiliki tanggungan (jasa/hutang/barang) yang harus digantikan kepada orang lain)]

Tip) Mengimpas (Impas의 경우 Me를 어근으로 붙여 사용하지 않는다) 의 경우 자주 사용되지 않는 표현으로 빚을 모두 청산한 경우나 변제한 경우 Membayar 또는 Melunasi로 대체한다.

Membayar (utang) sampai lunas, melunasi, menganggap sudah lunas (Tidak biasa digunakan)

a. Aku sudah membayar semua uang yang kupinjam. Berarti kita *impas*.

차용한 돈에 대한 지불을 마쳤다. 즉 (빚을) 청산했다는 뜻이다.

b. Berapa jumlah unit yang harus dijual untuk mencapai titik *impas*

얼마나 팔아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나.

c. Sudah *impas* sekarang, oke? Anda tak perlu melakukan apa-apa lagi.

이제 끝난 거야 (비긴 거야, 상쇄된 거야) 그러니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3. **Membayar** 어근은 Bayar로 무언가에 대한 대가로 지불함, 물건값을 치르다 약속 등을 이행하다 하여 의무를 수행한 경우를 뜻한다.

주로 접두어와 접미사를 붙여 Pembayaran 지불이라는 단어로 종종 사용된다.

[Memberikan uang (untuk pengganti harga barang yg diterima, melunasi utang, dsb.) (Suatu kegiatan memberikan uang untuk mengganti harga barang yang kita terima)

a. Dalam *membayar* utang puasa artinya menggantinya dengan puasa hari lain.

금식일을 변제한다는 뜻은 금식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다는 뜻이다.

b. Kami akan *membayar* televisi ini melalui cicilan 6 bulan.

텔레비전 (구입비) 을 6개월 할부로 지불할 것이다.

4. **Beres**: 잘 정리가 된 , 깔끔한 이라는 뜻을 가지며 무언가 꼬이지 않고 잘 풀려 해결 되었을 때 또는 채무등이 종결되었을 때를 뜻한다. 제거된, 없애진, 끝난 이라는 뜻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다.

[lunas (tentang utang); habis ; = Selasai , (Sinonim Lunas, hal yang membedakan dari tingkat formalitas (<lunas))]

a. Hutangku sudah *beres* jadi aku tidak perlu memikirkannya lagi.

빚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이상 신경 쓸 ( 생각할 ) 필요가 없다.

b. Semuanya sudah *beres* tinggal berangkat saja. 모든 게 해결되어(정리되어) 떠나는 일만 남았다.

c. Masalah yang kemarin timbul sudah *beres* dengan baik.

어제 발생 한 문제가 잘 해결 되었다.



#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이용안내

###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 한인뉴스와 함께 한 14년간의 여정을 마치며....

한 해가 바람처럼 훑날려 어느덧 잦아 들은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한인뉴스 지면을 빌려 편집인으로 14년 봉직한 소회를 몇 자 적어 구독자들에게 올립니다.



2001년 1월경 당시 한인회장이시던 승은호 회장님으로부터 출근 중 전화를 받고 당일 Korindo 사무실에서 전격적으로 한인회 부회장 겸 한인뉴스 편집인으로 임명 받고 그 자리에서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한인회보를 보여 주시면서 우리도 이 정도는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저에게 주문 하셨습니다. 그 당시 흑백에 내용도 철 지난 건강, 일반 상식 등으로 채워졌던 것이 오늘날 한인뉴스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초창기 같이 수고하셨던 김재민 사무국장, 한국으로 간 김영민 씨 그리고 박정자 시인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더욱이 2012년도 세계 한인회보 콘테스트에서 본지가 당당히 콘텐츠 부분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인정받는 잡지가 된 점은 쾌거가 아닐 수 없었고 이후로 자타 공히 손색없는 잡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기고 하여주신 김문환 논설위원, 이승민씨, 사공경씨, 신성철씨, 김성월씨, 서미숙씨 등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도의 예산 없이 순수히 광고주에 의존했던 한인뉴스.....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한 호의 결호 없이 사명을 다해온 한인뉴스를 성원해주신 기업체와 동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그 동안 편집위원으로 수고 해주신 김문환, 황윤홍, 최양기, 김재민, 편집장이신 홍석영, 전민규기자에게도 그 동안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병신년(丙申年) 새해 조규철 올림

## 2016년 안인회 임원산조금 명단

2015년 12월 1일 기준(접수순)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액(USD)
1	한인회 명예회원	Achmad Baiquni	BANK NEGARA INDONESIA	2016	Rp.135,000,000
2	한인회 자문위원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6	1,000
총 금액					US\$ 1,000
					Rp.135,000,000

## 2015년 안인회 임원산조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액(USD)
1	한인회 명예회장	승 은 호	KORINDO GROUP	2015	19,963
2	한인회 명예고문	김 재 유	PT. DONG SUNG INDONESIA	2015	5,000
3	한인회 회장	신 기 업	PT. HANINDO EXPRESS UTAMA	2015	20,000
4	한인회 수석 부회장	조 규 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5	10,000
5	한인회 수석 부회장	배 도 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2015	10,000
6	한인회 부회장	김 동 수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2015	Rp. 71,000,000
7	한인회 부회장	김 영 옥	PT. GAYA INDAH KHARISMA	2015	5,000
8	한인회 부회장	김 주 철	PT. STAR CAMTEX	2015	5,000
9	한인회 부회장	김 준 규	PT. CIPTA ORION METAL	2015	5,000
10	한인회 부회장	김 희 년	PT. DAEWOO SECURITIES INDONESIA	2015	5,000
11	한인회 부회장	박 재 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5	5,000
12	한인회 부회장	배 응 식	FIKI GROUP NUSANTARA	2014-2015	10,000
13	한인회 부회장	엄 정 호	PT. ING INTERNATIONAL	2015	5,000
14	한인회 부회장	이 재 학	PT. KEB HANA BANK INDONESIA	2015	5,000
15	한인회 부회장	이 지 현	PT. ZIMMOAH MARINE TRANS	2015	5,000
16	한인회 부회장	이 진 수	PT. SUNG BO JAYA	2015	5,000
17	한인회 부회장	이 호 덕	PT. VICTOR JAYA RAYA	2015	5,000
18	한인회 부회장	최 광 수	PT. BIG STAR	2015	5,000
19	한인회 부회장	황 의 상	PT. SEPULUH SUMBER ANUGERAH	2015	5,000
20	한인회 자문위원	강 덕 재	PT. LEMBUSWANA PERKASA	2015	1,000
21	한인회 자문위원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5	1,000
22	한인회 자문위원	김 석 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5	1,000
23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만	PT. BATAVIA CHEMTEK	2015	1,000
24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주	PT. DEWA CITRA SEJATI	2015	1,000
25	한인회 자문위원	김 우 재	PT. KOIN BUMI	2015	1,000
26	한인회 자문위원	박 현 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5	1,000
27	한인회 자문위원	석 웅 치	PT. DAYUP INDO	2015	1,000
28	한인회 자문위원	송 재 선	PT. PUTRA HANKUK	2015	1,000
29	한인회 자문위원	양 영 연	PT. TAEWON INDONESIA	2015	1,000
30	한인회 자문위원	이 승 민	PT. YSM & PARTNERS	2015	1,000
31	한인회 자문위원	이 진 호	PT. JIN YOUNG	2015	1,000
32	한인회 자문위원	이 현 상	PT. ROYAL KORINDAH	2015	Rp. 13,460,000
33	한인회 자문위원	정 무 웅	코린도장학재단	2015	1,000

34	한인회 자문위원	최 정 남	PT. GLOBAL FIBERINDO	2015	1,000
35	한인회 자문위원	하 연 수	PT. SEOLIN	2015	1,000
36	한인회 자문위원	현 상 범	PT. INAMEN JAYA	2015	1,000
37	한인회 이사	구 자 성	일 요 신 문	2015	1,000
38	한인회 이사	김 경 곤	PT. SUKWANG INDONESIA	2015	1,000
39	한인회 이사	김 광 현	KUALA GROUP	2013/2015	Rp.27,500,000
40	한인회 이사	김 경 국	PT. NES	2015	1,000
41	한인회 이사	김 도 상	PT. HONGIK INDONESIA	2015	1,000
42	한인회 이사	김 상 태	PT. SMS GROUP	2015	1,000
43	한인회 이사	김 세 형	PT. SJ GLOBAL INDONESIA	2015	1,000
44	한인회 이사	김 종 성	PT. BONGMAN INTERNATIONAL	2015	Rp.13,500,000
45	한인회 이사	김 종 현	PT. KOIN BUMI	2015	1,000
46	한인회 이사	김 현 재	PT. TOUR 153	2014-2015	1,986
47	한인회 이사	김 희 익	PT. EPS INDONESIA	2015	1,000
48	한인회 이사	노 승 원	PT. SGWICUS INDONESIA	2015	1,000
49	한인회 이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5	1,000
50	한인회 이사	박 성 대	PT. HANJIN INDONESIA JAYA	2015	1,000
51	한인회 이사	서 영 름	PT. PRATAMA ABADI INDUSTRI	2015	1,000
52	한인회 이사	서 준 형	PT. TACHYON INDO	2014-2015	2,000
53	한인회 이사	송 판 원	PT. KORYE POLYMER JAYA	2015	1,000
54	한인회 이사	신 규 태	PT. INDO SUNG IL JAYA	2015	1,000
55	한인회 이사	신 만 기	PT. PARKLAND WORLD INDONESIA	2015	1,000
56	한인회 이사	안 상 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5	1,000
57	한인회 이사	안 선 근	U.I.N UNIVERSITY	2015	1,000
58	한인회 이사	양 시 완	PT. KISWIRE INDONESIA	2015	1,000
59	한인회 이사	양 태 화	PT. BOSUNG INDONESIA	2015	1,000
60	한인회 이사	오 세 명	PT. SUNG LIM CHEMICAL	2015	1,000
61	한인회 이사	유 주 완	PT. FEEL BUY INDONESIA	2015	1,000
62	한인회 이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5	1,000
63	한인회 이사	윤 조 현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2015	1,000
64	한인회 이사	이 상 일	PT. UNGARAN INDAH BUSANA	2015	1,000
65	한인회 이사	이 소 왕	PT. LSW	2015	1,000
66	한인회 이사	이 옥 찬	PT. KORINA SEMARANG	2015	1,000
67	한인회 이사	이 윤 상	PAKUWON GROUP	2015	1,000
68	한인회 이사	이 주 한	PT. MEDISON JAYA RAYA	2014-2015	2,000
69	한인회 이사	이 준 하	PT. DAELIM INDONESIA	2015	1,000
70	한인회 이사	이 지 완	PT. JIN YOUNG	2015	1,000
71	한인회 이사	이 철 훈	PT. INDOBOX UTAMA JAYA	2015	1,000
72	한인회 이사	임 성 필	PT. LSP INDONESIA	2014-2015	2,000
73	한인회 이사	정 철 주	PT. DONG IL INDONESIA	2015	1,000
74	한인회 이사	조 호 신	PT. SONERGY	2015	Rp.13,900,000
75	한인회 이사	홍 기 호	PT. AURORA WORLD INDONESIA	2015	1,000
76	한인회 이사	황 윤 흥	PT. JAC RECRUITMENT INDONESIA	2015	Rp.13,700,000
총 금액					US\$ 192,949
					Rp153,060,000

# 2015년 안인회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2015년 12월 1일 기준(접수순)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1	승은호	2015	300,000
2	신기엽	2015	300,000
3	조규철	2015	300,000
4	김재민	2015	300,000
5	신규태	2015-2016	600,000
6	김영환	2013-2015	300,000
7	이현	2013-2015	300,000
8	최우범	2014-2015	300,000
9	최석일	2015	300,000
10	오세명	2015	300,000
11	김대근	2015	1,300,000
12	김영울	2015	1,300,000
13	김창근	2015	1,300,000
14	조용재	2015	1,300,000
15	김양임	2015	300,000
16	안창섭	2015	300,000
17	HORISON FORBIS HOTEL	2015	3,000,000
18	최양기	2015	300,000
19	홍석영	2015	300,000
20	강덕재	2015	300,000
21	승진아	2015	300,000
22	오세윤	2015	300,000
23	강희중	2015	300,000
24	김평수	2015	10,000,000
25	PT. INDOKO SAKTI	2015	1,300,000
26	한덕수	2015	300,000
27	박재한	2015	300,000
28	배응식	2015	300,000
29	이순형	2015	300,000
30	이호완	2015	300,000
31	류호한	2015	300,000
32	전영돈	2015	300,000
33	양영연	2015	300,000
34	김광현	2013-2015	900,000
35	전민식	2013-2015	900,000
36	이호덕	2015	300,000
37	조호신	2013/2015	600,000
38	신기엽	2015	1,500,000
39	No Name	2015	300,000
총 금액			Rp.28,500,000



## [한인회 외비 납부 안내]

#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Rp. A/C NO: 001-001-1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 한인회 무료 법률 상담 안내

## 1. 상담자 :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 파산관리사

HP : 0816 1911 245

Tel : (021) 5296 0643

E-Mail : yisngmin@centrin.net.id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리아센터 202호

KOREA CENTER BUILDING LT.2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 2. 상담자 : 이 소 왕 변호사

HP : 0816 846 631

Tel : (021) 520 7153

E-Mail : doowang@cbn.net.id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장소 :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1701호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 3. 상담자 : 김 민 수 변호사

HP : 0816 794 257

Tel : (021) 797 6254

E-Mail : ms@paklawfirm.com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린도 사무실 5층

WISMA KORINDO LT. 5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 <상담 에티켓>

상담업무의 효율 증진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변호사에게 사전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E** pt.innomate@gmail.com  
**T** +62. 21. 7919. 2006(Rep.) **I**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	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렘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가나

한식당  
KANA 가나 RESTOLOUNGE



1. 복요리전문
2. 직수입한 삼합
3. 비즈니스컨셉 (삼계탕)
4. 돌잔치, 모임, 케이터링행사 대환영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918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공지능사무공장한국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2996 1915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아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뵈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미와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짜짜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크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	--------------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	----------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짜짜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짜짜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짜부부르)	8459 9858

● 한인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강희중 회장 0816 798 221  
 사공경 부회장/기획 /문협회장 0816 1909 976  
 이일하 부회장/공연/음협회장 겸직 /사무국장 0811 91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미협회원 0878 5480 4815  
 이선현 감사/아버지양상블 단장 0811 8120 666  
 한경순 사무차장/문협회원 081677634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제경중 0811 830 477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이수진 0858 8870 6856  
 문인협회 회장 : 사공경 0816 1909 976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 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김인순 0819 0592 2421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 단장 : 이선현 0811 8120 666

<촉탁 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 교류 0816 1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K-마트 725 2122  
 워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야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카시서울(버카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신타카 클래식(버카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140 1245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횃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521 2522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라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뱅크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쁘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1780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1024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폴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올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 HP. 0816-873-176  
 | HP. 0816-1390-333  
 | E-mail. 3spearl@hanmail.net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너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 2515

##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싱가폴항공.....	021)570 4411

##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 한마음으로 두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미래

25년간 지켜온 KMK의 소망입니다.  
Human Touch Management



# KORINDO Plants the Green



##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펄프,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 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and  
friend moving towards  
the future together



# “Think the Unthinkable”

##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이노메이트는 차별화된 컨셉과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 디자인 회사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성공적인 디자인 프로젝트 전략과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가치를 극대화 하는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 BNI 서울지점개설!



**BNI은행은 귀사의 성공을  
적극 지원합니다**

**BNI** business banking  
**BNI** smart remittance  
**BNI** smart trade

BNI 서울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WISE TOWER 8층  
전화 82-2-6386-8646 팩스 82-2-6386-8115/8116

**1500046**  
BNI Call



@BNI46



BNI

 **BNI**

Serving the Country, the Pride of the Nation